

碩士學位 論文

濟州道 實業界 高等學校 學生들의
職業價値觀에 關한 調查 研究

指導教授 金 恒 元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 會 教 育 專 攻

高 錫 喜

1998年 8月

濟州道 實業界 高等學校 學生들의
職業價値觀에 關한 調査 研究

指導教授 金 恒 元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出者 高 錫 喜



高錫喜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8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抄錄)

濟州道 實業界 高等學校 學生들의
職業價値觀에 關한 調查 研究
高 錫 喜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恒 元

본 연구는 제주도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로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직업가치관을 묻는 24개 문항을 선정된 연구내용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인 별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입학동기와 배경을 보면 중학교때 부터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40.9%)이 더 많았고,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51.3%)이 남학생(31.6%)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성적은 중위권이 대부분이나 그중에서도 상위권에는 여학생이, 하위권에는 남학생이 많았다.

대다수 학생(74.8%)들은 실력이 부족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으며, 46.1%의 학생은 본인 스스로가 진학을 결정했으나 학교선택에 만족해 하는 학생은 절반도 안되고 있다.

진로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보면 평소에도 취업과 진학문제 등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있으나, 그 중 가장 큰 고민은 남(29.3%)·여(46.2%)학생 공히 어떻게하면 대학에 진학을 하느냐에 두고 있어 기회가 주어지면 진로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학과와 자신의 적성과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업과목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반응(36.6%)도 많이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포부를 보면 자신의 진로는 적성과 능력에 따라 친구(35.1%)나 부모(27.6%)와 상의하여 결정하겠다는 학생이 다수이며, 특히 고등학교 졸업후에는 대

학에 진학하겠다는 학생(78.6%)이 무려 3분의 2나 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훌륭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34.6%), 학벌이 중요한 사회이기(19.9%) 때문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16.3%)라는 반응이다.

직업선택의 기준으로는 적성과 흥미(57.7%) 및 자신의 능력(25.1%)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건전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전문·기술직”과 “서비스직”으로서 전공과는 무관한 직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직업관에 대해 학생들은 남보다 실력이나 또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다수 학생(65.6%)들은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적성과 소질이 우수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통해 편견없이 실업계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학과 및 진로에 대한 자세한 홍보와 학부모, 교사, 학생이 동참하는 진로탐색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둘째, 특정 계열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계열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며, 부전공시간을 운영하여 중도탈락하는 학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함은 물론 확실적인 직업교육을 지양하고 진학희망자를 위한 효율적인 진학지도가 병행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여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시대조류에 맞게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공학과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특성화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이 전공과는 무관한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취업을 보장해 주고, 동일계 4년제 대학진학의 특전을 주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지식과 기능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긍지와 희망을 가지고 직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올바른 직업윤리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目 次

I. 序 論	1
1. 研究 目的	1
2. 研究 方法	3
II. 理論的 背景	5
1. 職業의 概念	5
2. 價值觀의 概念	7
3. 職業價值觀과 形成要因	9
1) 職業價值觀의 定義	9
2) 職業價值觀의 形成要因	11
III. 研究 結果와 論議	15
1. 入學動機와 背景	15
2. 進路에 對한 關心과 態度	23
3. 職業에 對한 抱負	33
4. 職業 選擇 基準	40
5. 職業觀	47
IV. 結論 : 要約과 提言	54
參考文獻	58
英文抄錄	61
<附 錄>	63

表 目 次

< 표 1 > 조사대상자의 분포상황	3
< 표 2 > 중학교때 계획한 진로	17
< 표 3 > 중학교 졸업당시의 학급석차	18
< 표 4 >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동기	19
< 표 5 >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준 사람	21
< 표 6 >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만족도	22
< 표 7 > 자신의 가장 큰 고민	24
< 표 8 > 장래 진로와 직업에 대한 관심	27
< 표 9 > 진로변경 계획	28
< 표 10 > 장래 진로에 대한 고민	29
< 표 11 > 전공학과와 적성과의 관계	31
< 표 12 > 현재 배우고 있는 실업과목의 활용성에 대한 인식	32
< 표 13 > 진로결정의 기준	34
< 표 14 > 진로결정시 의논상대	35
< 표 15 > 고등학교 졸업후 진로	37
< 표 16 >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38
< 표 17 >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	41
< 표 18 > 졸업후 직장에서의 성공여부	42
< 표 19 > 가장 희망하는 직업	43
< 표 20 > 직업 선택 기준	45
< 표 21 > 직업 선택시 부모와 의견이 다를 경우의 태도	46
< 표 22 >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조건	49
< 표 23 > 장래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는 원인	50
< 표 24 > 미래의 인간상	51
< 표 25 > 가업승계에 대한 견해	53

I. 序 論

1. 研究 目的

합리적이고 현명한 진로 결정은 우리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도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며, 또 사회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개인이 생계의 수단인 직업생활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향유하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작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목표에 의하면 농고는 농업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중견 영농인 및 농업관련직 종사자를 양성하고, 공고는 공업의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공업기술인을 양성하며, 상고는 상업 및 경영의 각 분야에 종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산업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¹⁾.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시키고 적성을 찾아내어 사회에 나가 공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것은, 오늘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나라 경제구조를 보면, 70년대의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에서 80년대의 중화학 공업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겪었으며, 90년대에는 기술

1) 문교부(1982), 「고등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 한국원호복지공단, pp. 230~231.

· 집약적인 산업구조와 정보화 산업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경제성장과 정보화사회로 지향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실업계 고등학교에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의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으며, 성적은 우수하나 가정이 빈곤한 학생들은 졸업후 취업 보장이 안되고 급료나 승진 등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기능인력 수급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육성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보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이렇게 입학한 학생들마저도 자기의 적성을 무시한 학교선택과 자기가 희망하지 않았던 전공 분야로의 입학 등 불합리한 입학동기와 입학후의 학업 부적응 등으로 자퇴하여 진로를 바꾸는 학생이 있으며, 남아있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심하고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결과 그들은 진로선택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를 결정하여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많은 기능인들이 직장을 옮기거나 또는 대학진학을 위한 학원수강을 하는 등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국가 사회적인 현실과 교육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고장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로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선정하였다

첫째, 직업의 개념과 의의, 가치관의 개념, 직업가치관과 형성요인 등 직

업 의식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을 검토한다.

둘째, 입학동기와 배경, 진로에 대한 관심과 태도, 직업에 대한 포부, 직업 선택기준, 직업관 등을 조사 분석한다.

셋째,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올바른 직업 가치관 형성을 위한 직업교육과 진로지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2. 研究 方法

본 연구는 제주시, 서귀포시·남제주군, 북제주군에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중에서 지역별·계열별로 학생수를 감안하여 농업고등학교 1개, 공업고등학교 2개, 상업고등학교 4개를 선정하여, 진로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는 2학년을 대상으로 1997년 12월에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분포상황은 < 표 1 >과 같다.

< 표 1 > 조사 대상자의 분포 상황

구 분	계 열	배부 수	회수된 수	사용불가 능한 수	유효한 수
제 주 시	농 업	99	99	7	92
	공 업	98	98	5	93
	상 업	87	87	2	85
서귀포시·남군	상 업	122	122	2	120
북 군	공 업	96	96	3	93
	상 업	98	98	2	96
계		600	600	21	579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선행연구 및 참고서적 그리고 조사자가 평소 생각했던 사항들을 첨가하여 본 연구의 목적달성에 적합하도록 배경조사 문항 4개를 포함하여 28개 문항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첫째, 직업가치관을 묻는 24개 문항을 사회·경제적 변인별로 백분율(%)로 처리하여 표로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둘째, 각 사회·경제적 변인별(성별, 학교별, 생활정도별, 보호자 직업별)로 응답의 차에 대한 유의도를 알아 보기 위해 카이자승(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도 수준은 0.5%, 1%, 5%로 정하였다.

셋째,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반응 경향을 제시하고,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그 유의한 차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통계처리는 질문지의 부호화(Coding) 과정을 거쳐 SPSS/PC(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의 하위 Program인 CROSSTABS를 적용하여 처리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을 입학동기와 배경, 진로에 대한 관심과 태도, 직업에 대한 포부, 직업선택기준, 직업관 등으로 제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표집 집단은 제주도내 7개 실업계고등학교 2학년 남, 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표준화 된 것이 아니며,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II. 理論的 背景

1. 職業의 概念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크며, 그것이 개인 생활에 대하여 가지는 의의 또한 매우 크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우선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노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 받고 있으며, 이렇다 할 직업이 없이는 떳떳한 사회 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삶의 의미를 찾기도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현대에 있어서 직업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인 동시에, 사회 공동 생활에 참여하는 통로이며, 나아가서는 자아 실현을 도모하고 인격의 성장을 이룩하는 광장이요 도장이기 때문이다.

교육학 용어 사전에서는 직업을 “생계를 세우기 위하여 보수를 받으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종사하는 일의 종류”²⁾를 의미하고, 국어 대사전에서는 “급료를 받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한가지 일에 종사하는 지속적인 사회활동”³⁾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이기원은 “직업은 자급자족 시대의 생업과 달리 일정한 직분의 담당과 전체 사회의 요구에 따른 분업적 참여이며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사회적 제도”⁴⁾라고 했으며, 김충기는 “직업은 성인들의 활동으로 경제적으로 보상되는 활동”⁵⁾이라 했다.

그러므로 직업은 한 개인의 생애의 목표를 이끌어 가는 힘이 되고 협동적

2) 서울대 사대(1981), 「교육학용어사전」, 배영사, p.522.

3) 김상형(1993),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p.1919

4) 이기원 (1983), 「국민정신교육」, 갑을출판사, p.75.

5) 김충기(1983),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교육과학사, p.20.

목표를 달성하는 원동력이 되며,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공헌의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은⁶⁾ 우선 생계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의식주의 해결이 가장 우선적인 요건이며, 이를 위한 재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둘째, 직업은 소속감을 준다. 직업은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조직에 소속되게 하여 그 조직의 활동을 공유하고 구성원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직업은 개인의 가치를 실현시켜 준다.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부, 권력, 명예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가치의 실현은 직업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넷째, 직업은 개성 발휘 및 자아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들은 각자의 소질과 재능, 그리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성의 발휘와 자아 실현은 주로 직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⁷⁾

첫째, 어떠한 일이나 노동을 하더라도 보수와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소득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

둘째, 사회적으로 유해한 활동을 한 경우

셋째, 잠정적으로 사회에 유용한 일을 하므로써 그를 통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넷째, 이자, 주식 배당, 임대료, 소작료, 권리금과 같은 재산 수입을 얻는 경우

다섯째, 연금법이나 사회 보장에 의해서 수입을 얻는 경우

여섯째, 보험금 수령, 차용 또는 자기 소유의 토지나 주권을 매각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

6) 홍기형·이승우(1981), 「진로지도」, 교육출판사, pp.4~5.

7) 상계서, pp.6~8.

일꾼째,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여덟째, 법률 위반 행위나 법률에 의해서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

또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 어떠한 종류의 것이라도 반드시 사회 발전과 번영에 공헌하게 마련이다. 봉건사회에서 직업에 따라 신분의 상하를 가름하던 전통적 관념이 오늘날에도 다소는 남아 있어 사람에 따라 직업의 귀천을 논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 직업이 어떠한 것이든 그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떳떳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직업이든지 장점만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단점만을 가지고 있는 직업은 없다. 즉, 절대적으로 좋거나 절대적으로 나쁜 직업은 없다. 또, 나의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직업은 없으므로, 내가 바라는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그 요인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직업을 고려해야 한다.

나의 소질, 적성, 능력, 여건, 등은 변할 수 있다. 현재의 단편적인 상황만을 운명적이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현재의 나에 관한 정확한 판단뿐만 아니라 미래의 변화 및 발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나', '미래의 나',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직업의 세계는 계속 변한다. 단순히 현재의 사회적 인기에 큰 비중을 두기 보다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함은 물론, 계속적으로 직업 세계의 변화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2. 價値觀의 概念

가치관에 관한 정의는 연구 영역이나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내려지고 있다. 박희섭은 “행위의 이용 가능한 제 목표 수단 및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유하게 소유하고 있는 바람직스러운 것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개념”⁸⁾을 가치관이라고 했다.

황정규는 “개인이나 집단의 사고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가치이고 이러한 가치들이 모여서 가치관을 이룬다”⁹⁾ 고 했으며, 홍승직은 가치관을 “두 개 이상의 대상 중에서 그 어떤 것을 택하게 하는 데에 기본적 역할을 하는 것”¹⁰⁾ 이라 하였고, 차경수는 “가치관은 사람들이 어떤 사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 경향의 반응으로서 사물이나 행동에 대하여 부여하는 중요성의 정도 또는 가치 기준”¹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범모는 “여러 가지 인간 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¹²⁾이라고 정의하고, 인간이 자기의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기의 위치 내지 가치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여 중요성 내지 기능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가치관은 사람의 동기와 포부를 크게 좌우한다.

둘째, 가치관은 우리의 지각과 해석을 크게 좌우한다.

셋째, 가치관은 우리가 인생의 어디에서 그 만족과 의의를 얻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

넷째 가치관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가치기준을 준다. 한 사람의 행동 내지 행동에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회적으로는 그 사회의 각종 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규율을 제공한다.

또한 가치는 좋다 - 나쁘다, 바람직하다 - 바람직하지 못하다 등의 선호적 관심을 갖고있는 일정한 상황, 사건 혹은 사물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결론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것, 되고 싶은 것, 의무로 느끼는 것, 숭배하고 싶

8) 박희섭(1986),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고찰」, 청소년지도육성회, p.14.
9) 황정규(1970), 「교육평가」, 제동문화사, p.614.
10) 홍승직(1973),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p.22.
11) 차경수(1977), 「산업사회 교육문제」, 백영사, p.140.
12) 정범모(1983), 「가치관과 교육」, 배영사, p.27.

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등을 포함한 모든 관심의 대상이며 인간행동에 조직과 방향을 주는 의미있고 정의적인 성격을 가진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또 가치관을 행동표준 혹은 종합적 태도의 대답이 되는 목표 내지 표준이라 정의하여, 인간의 태도를 방향짓고 결정해 주는 특성으로서 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치관을 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 대인 관계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개념으로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개념으로서 가치관이 그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개인의 행동특성으로 설명이 되어 지고 있다.

이상에서 가치관은 첫째, 문화적인 산물이나 개인의 학습을 통해서 내면화되어 동기에 작용하고 있으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개념이 아닌 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며, 둘째,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평가적 표준과 이념 내지 신념이며 이는 개인의 심리적 조직을 체계화하여 행동의 통일을 이룩하고 안정을 갖게하기 위한 사회적 통합안전을 위해서도 극히 필요한 것이다.¹³⁾

3. 職業價值觀과 形成要因

1) 職業價值觀의 定義

올바른 직업관은 보람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직업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지 않고서는 어떠한 직업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알 수 없을 것이며 그 직업이 가진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가치관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가치관 중에서 직업가치관은 특

13) 정원식(1980), 「정의의 교육」, 배영사, pp.120~130.

정 직업이 아닌 일반화된 개념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말하며 이는 가족, 학교, 직업환경뿐 아니라 사회와 매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한다고 했으며, 주로 물질적인 가치관에 대한 태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획득적인 기능에 의한 경제적 가치에서 출발된다고 하였다.¹⁴⁾

따라서 직업의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먼저 가치판단이 요구되는데, 가치판단이란 개인의 직업관을 기준으로하여 직업을 자기의 세계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와 관계되는 것으로서, 첫째는 직업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는 직업 가치관으로 '이기주의적 직업가치관' 이라 부를 수 있고, 두번째의 직업가치관은 개인이 속하고 있는 집단전체의 목적이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직업가치관으로 '전체주의적 직업가치관' 이라 할 수 있으며, 세번째 직업가치관은 위의 두 직업가치관을 조화시킨 것으로 자아의 실현이나 개성의 발휘라는 측면으로 보는 직업가치관으로 '자아실현적 직업가치관' 이라 했고,¹⁵⁾ 김충기는 자아실현적 직업가치관이 값진 진의를 발휘하려면 첫째, 직업이 생계유지를 위한 절대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직업이 자신의 능력과 취미와 개성에 알맞는 것이어야 하고, 업무가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직장에서 행해져야 한다. 셋째, 직장인은 일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그 일에만 정진하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 넷째 직업이 미풍양속에 위배되지 않고 인격도야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¹⁶⁾고 구비요건을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여러 형태의 직업가치관을 이상화시킨 이념형에 불과하고,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이들이 결합된 복합적인 형태의 직업가치관들이었다고 생각된다.

14) 김용기(1974), 「현대교육학원론」, 박영사, p.53.

15) 장원중(1985), 「직업과 윤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39~40.

16) 김충기(1987), 「청소년의 직업관」, 민음사, p.47.

2) 職業價値觀의 形成要因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일 시점의 평면적인 총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집단의 역사적 경험의 축적과 그 성원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적상황 또는 사회구조 여하에도 크게 관련이 있게 된다.

정세구는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교육과정, 교육서, 학교내 씨클, 교사, 성, 연령, 가정환경, mass - communication, 사회적환경 등 여러 요인을 들고 있으며,¹⁷⁾ 이정근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관념, 일에 부여하는 가치 및 일에 대한 태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은 직업가치관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한다고 단언하기가 힘들다¹⁸⁾고 했다.

이 외에도 적성, 흥미, 성, 연령, 체력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요인, 직업결정자에 의해 인지되는 상호 인간관계, 결정자와 준거집단과의 관련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상호 관련적이고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개인적인 차원, 사회경제적 차원, 교육체계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적 차원

가. 능력

일반지능 및 적성으로서의 능력은 직업의 선택과 적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직업선택은 개인의 자질이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으로 알맞게 일치되어야 하고 개인의 지능과 직업이 요구하는 지능수준에 부합되어야 한

17) 정세구(1983), 「가치·태도교육의 이론과 실제」, 배영사, p.10

18) 이정근(1982), 「진로관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교육개발원, p.42

다. 결국 어떤 직업에서 요구되고 있는 지능정도에 도달하지 못한 지능을 가진 사람은 그 직업을 선택할만한 적합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¹⁹⁾

나. 인성

인성에는 개인의 가치관, 욕구, 욕망수준, 개인관계 등의 여러 특성이 속한다.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열망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망수준이 낮으면 그에 따라 낮은 수준의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²⁰⁾

이처럼 인성적인 특성과 직업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정할 수 있으며 개인의 직업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 직업적 흥미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흥미없는 직업의 선택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같은 직업적 흥미는 직업선택이나 적응과 관계가 있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직업이라 하여도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타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²¹⁾

라. 가정배경

가정은 부모와 자녀들이 애정과 신뢰를 정신적 바탕으로 하여 상호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혈육단체로 인간이 출생하면서 갖는 모든 경험을 최초로 제공하여 주는 장소이다.

19)이영덕(1982), 「생활지도의 원리와 실제」, 교학도서출판사, pp.181~183

20)강무섭·박영숙(1984), 「학생의 진로결정과정 분석」, 교육개발원, p.35

21)강무섭·박영숙(1984), 상계서, p.38

따라서 부모의 교육열, 사회·경제적 위치, 가치관 등은 자녀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준다.²²⁾

② 사회경제적인 차원

가. 산업구조의 변화요인

산업구조의 변화는 취업자의 산업별 이동을 조장하여 결국 인력수급계획의 조정을 요구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임금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가 초래됨으로서 수집된 정보는 직업선택이 필요한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취업구조는 제1차 산업의 취업자가 감소하고, 기술혁신으로 제2차 산업부분의 취업율은 둔화되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제3차 산업의 취업율은 증가할 것이다.

나. 기술산업의 혁신요인

첨단기술은 새로이 개발되고 또 신기술이 개발되면 기존의 기술로서는 부족함이 많이 생긴다. 즉 새기술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능을 추출하여 새 직종을 창출하고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직종의 창출 및 그 직종에서 요구되는 자격요건에 대한 각종의 정보 및 교육 등은 직업선택에 영향을 준다.

다. 사회의 직업관

직업관은 역사의 발전에 따라 변천해 왔다. 직업선택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어느 직업이라도 정당한 효력에 대한 댓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건전한 직업의식 및 직업관이 조장되어야 한다.

22) 유안울(1981), 「교육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개발원, p.11

③ 교육적 차원

가. 학교의 배경

학생 개인이 재학하는 학교의 교육방침이나 직업지도내용, 그리고 교사들의 지도 등은 학생 개인의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직업적 경험이나 훈련 등은 취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장래 직업적 안정을 추구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진로지도의 내용 및 강도,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및 여러가지 의식은 교사와의 상담이나 학교에서 사귀는 친구들의 영향도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나. 교육정책

교육체제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을 수용한다. 이는 사회·경제의 수요에 따른 필요한 인력의 양성과 공급,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어 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학입시제도의 다양화나 실업교육의 특성화와 같은 교육정책은 학생의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움요인으로 작용할 경우는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그 책임의 범위가 매우 클 수 있다.

Ⅲ. 研究 結果와 論議

1. 入學動機와 背景

1) 중학교때 계획한 진로

중학교 재학당시 계획한 장래의 진로를 보면 < 표 2 >와 같다.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40.9%)이 “실업계고등학교 졸업후 취업”하겠다는 학생(32.8%)보다 더 많은데, 이것은 중학교 재학때부터 대학 진학을 희망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 학교별, 생활수준별, 보호자 직업별로 $P < 0.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성별로는 여학생(51.3%)이 남학생(31.6%) 보다 “인문계고등학교 졸업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남학생(42.1%)이 여학생(22.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별로 보면 농고는 57.6%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공고는 59.1%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어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 생활수준별로는 상(47.4%)·하류층(51.3%)은 취업을, 중류층(43.6%)은 진학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농·어·목축업(42.2%)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보다는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중학교 졸업 당시의 학급 석차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졸업당시의 학급석차를 보면 <표 3 >과 같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중위권인 “21 - 30등”이 46.3%로

가장 많고 “31 - 40등”이 24.9%, “11 - 20등”이 18.0% 순으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 학교별, 생활수준별로 $P < 0.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성별로 볼 때 상위권에는 여학생(24.3%)이 비교적 많고 하위권에는 남학생(41.4%)이 훨씬 많은 편이며, 학교별로 상위권에 있는 학생 분포를 보면 공고가 31.2%, 상고가 19.9%, 농고가 7.6% 순으로, 하위권에는 농고가 70.7%, 상고가 34.5%, 공고가 9.2% 순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공고에 많이 재학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 보면 상위권에는 상(31.6%)·중(22.8%)·하류층(11.5%) 순으로 분포되어 있고 저소득층에는 하위권 학생들이 반을 차지하고 있다.

3)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동기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동기를 보면 < 표 4 >와 같다. 자기의 적성과 흥미, 또는 소질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고등학교 입학동기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실력이 부족하여 인문고 진학이 어려워서”가 74.8%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흥미가 있고 적성에 맞아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는 학생은 10.0%에 지나지 않았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 생활수준별로는 $P < 0.005$, 학교별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여학생 모두 “실력이 부족하여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워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학생이 각각 66.1%와 84.4%의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별로는 농고(67.4%)나 공고(68.8%)보다 상고(80.7%)가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활수준별로 보면 흥미와 적성에 맞아 입학한 경우는 상류층(26.3%)이, 실력이 부족하여 입학한 경우는 중류층(76.3%)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는 진로지도와 제도상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중학교때 계획한 진로

< 표 2 > 중학교때 계획한 진로

변인		문항	실업고졸 업후취업	인문고졸업 후대학진학	야간고진 학후취업	기타	계	d.f	χ^2
성별	남		128(42.1)	96(31.6)	1(0.3)	79(26.0)	304(100.0)	3	37.12***
	여		62(22.5)	141(51.3)	8(2.9)	64(23.3)	275(100.0)		
학교별	농고		53(57.6)	13(14.1)	-	26(28.3)	92(100.0)	6	67.95***
	공고		31(16.7)	110(59.1)	2(1.1)	43(23.1)	186(100.0)		
	상고		106(35.2)	114(37.9)	7(2.3)	74(24.6)	301(100.0)		
생활수준별	상		9(47.4)	4(21.1)	-	6(31.6)	19(100.0)	6	19.53***
	중		141(29.3)	210(43.6)	9(1.9)	122(25.3)	482(100.0)		
	하		40(51.3)	23(29.5)	-	15(19.2)	78(100.0)		
보호자직업별	농·어· 목축업		92(42.2)	73(33.5)	1(0.5)	52(23.9)	218(100.0)	18	54.49***
	상업		19(26.4)	42(58.3)	2(2.8)	9(12.5)	72(100.0)		
	공업		4(23.5)	8(47.1)	-	5(29.4)	17(100.0)		
	공무원		14(27.5)	21(41.2)	-	16(31.4)	51(100.0)		
	회사원		8(16.7)	25(52.1)	3(6.3)	12(25.0)	48(100.0)		
	자영업		8(13.3)	33(55.0)	-	19(31.7)	60(100.0)		
	기타		45(39.8)	35(31.0)	3(2.7)	30(26.5)	113(100.0)		
계		190(32.8)	237(40.9)	9(1.6)	143(24.7)	579(100.0)			

(*** : p<0.005)

2) 중학교 졸업 당시의 학급 석차

< 표 3 > 중학교 졸업당시의 학급석차

(%)

변인	문항	10등이내	11-20등	21-30등	31-40등	41등이하	계	d.f	χ^2
성별	남	8(2.6)	50(16.4)	120(39.5)	90(29.6)	36(11.8)	304(100.0)	4	33.32***
	여	13(4.7)	54(19.6)	148(53.8)	54(19.6)	6(2.2)	275(100.0)		
학교별	농고	2(2.2)	5(5.4)	20(21.7)	41(44.6)	24(26.1)	92(100.0)	8	131.96***
	공고	7(3.8)	51(27.4)	111(59.7)	15(8.1)	2(1.1)	186(100.0)		
	상고	12(4.0)	48(15.9)	137(45.5)	88(29.2)	16(5.3)	301(100.0)		
생활수준별	상	4(21.1)	2(10.5)	2(10.5)	7(36.8)	4(21.1)	19(100.0)	8	47.56***
	중	14(2.9)	96(19.9)	236(49.0)	109(22.6)	27(5.6)	482(100.0)		
	하	3(3.8)	6(7.7)	30(38.5)	28(35.9)	11(14.1)	78(100.0)		
보호자 직업업별	농·어·목축업	13(6.0)	47(21.6)	91(41.7)	57(26.1)	10(4.6)	218(100.0)	24	33.63
	상업	2(2.8)	11(15.3)	39(54.2)	16(22.2)	4(5.6)	72(100.0)		
	공업	-	2(11.8)	9(52.9)	3(17.6)	3(17.6)	17(100.0)		
	공무원	1(2.0)	5(9.8)	29(56.9)	13(25.5)	3(5.9)	51(100.0)		
	회사원	-	12(25.0)	25(52.1)	9(18.8)	2(4.2)	48(100.0)		
	자영업	2(3.3)	7(11.7)	33(55.0)	12(20.0)	6(10.0)	60(100.0)		
기타	3(2.7)	20(17.7)	42(37.2)	34(30.1)	14(12.4)	113(100.0)			
계		21(3.6)	104(18.0)	268(46.3)	144(24.9)	42(7.3)	579(100.0)		

(*** : p<0.005)

3)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 동기

< 표 4 >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 동기

(%)

문항 변인	흥미와적성 에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실력이 부족하여	다른사람의 권유에의해	동일계대학 진학을위해	대학진학이 필요없어서	계	d.f	χ^2	
성 별	남	40 (13.2)	7 (2.3)	201 (66.1)	26 (8.6)	21 (6.9)	9 (3.0)	304 (100.0)	5	31.48***
	여	18 (6.5)	8 (2.9)	232 (84.4)	8 (2.9)	4 (1.5)	5 (1.8)	275 (100.0)		
학 교 별	농고	10 (10.9)	3 (3.3)	62 (67.4)	9 (9.8)	4 (4.3)	4 (4.3)	92 (100.0)	10	22.47*
	공고	29 (15.6)	4 (2.2)	128 (68.8)	11 (5.9)	12 (6.5)	2 (1.1)	186 (100.0)		
	상고	19 (6.3)	8 (2.7)	243 (80.7)	14 (4.7)	9 (3.0)	8 (2.7)	301 (100.0)		
생 활 수 준 별	상	5 (26.3)	-	9 (47.4)	1 (5.3)	4 (21.1)	-	19 (100.0)	10	27.73***
	중	47 (9.8)	10 (2.1)	368 (76.3)	27 (5.6)	19 (3.9)	11 (2.3)	482 (100.0)		
	하	6 (7.7)	5 (6.4)	56 (71.8)	6 (7.7)	2 (2.6)	3 (3.8)	78 (100.0)		
보 호 자 직 업 별	농·어 목축업	23 (10.6)	9 (4.1)	149 (68.3)	17 (7.8)	14 (6.4)	6 (2.8)	218 (100.0)	30	28.90
	상업	4 (5.6)	1 (1.4)	64 (88.9)	2 (2.8)	-	1 (1.4)	72 (100.0)		
	공업	1 (5.9)	1 (5.9)	14 (82.4)	1 (5.9)	-	-	17 (100.0)		
	공무 원	4 (7.8)	1 (2.0)	44 (86.3)	-	1 (2.0)	1 (2.0)	51 (100.0)		
	회사 원	5 (10.4)	-	36 (75.0)	3 (6.3)	3 (6.3)	1 (2.1)	48 (100.0)		
	자영 업	6 (10.0)	-	48 (80.0)	3 (5.0)	2 (3.3)	1 (1.7)	60 (100.0)		
	기타	15 (13.3)	3 (2.7)	78 (69.0)	8 (7.1)	5 (4.4)	4 (3.5)	113 (100.0)		
	계	58 (10.0)	15 (2.6)	433 (74.8)	34 (5.9)	25 (4.3)	14 (2.4)	579 (100.0)		

(* : p<0.05, *** : p<0.005)

4)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준 사람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 표 5 >와 같다.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46.1%가 진학을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23.7%가 “선생님”의 지도로, 15.7%가 “부모·형제·친척”의 도움으로 입학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배경 변인별로는 보호자 직업별($P<0.05$)로 만이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진학하도록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반응은 상업(34.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 형제, 친척”이라는 반응은 공업(41.2%)이, “본인” 스스로 결정했다는 반응은 농·어·목축업(50.5%)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상급학교 진학문제는 학교와 가정의 긴밀히 연계되어 신중히 결정하도록 사전지도가 요망되어 진다.

5)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만족도

자신의 적성과 소질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재학중인 실업계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 표 6 >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그저 그렇다”가 41.6%, “대체로 만족스럽다”가 31.8%, “불만이다”가 16.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족해 하는 학생은 전체의 40.0%에도 못미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 선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P<0.01$)과 학교별($P<0.005$)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성별로는 남학생(55.6%)보다 여학생(66.9%)이 훨씬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공고(69.9%)가 가장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며, 다음이 상고(57.2%), 농고(55.5%) 순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평생교육 차원에서 중학교 과정에 직업정보와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4)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준 사람

< 표 5 >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준 사람

(%)

문항 변인		선생님	부모, 형제, 친척	선배, 친구	본인	계	d.f	χ^2
성 별	남	68(22.4)	49(16.1)	51(16.8)	136(44.7)	304(100.0)	3	3.05
	여	69(25.1)	42(15.3)	33(12.0)	131(47.6)	275(100.0)		
학 교 별	농고	24(26.1)	13(14.1)	16(17.4)	39(42.4)	92(100.0)	6	5.16
	공고	46(24.7)	26(14.0)	32(17.2)	82(44.1)	186(100.0)		
	상고	67(22.3)	52(17.3)	36(12.0)	146(48.5)	301(100.0)		
생 활 수 준 별	상	4(21.1)	2(10.5)	4(21.1)	9(47.4)	19(100.0)	6	6.08
	중	120(24.9)	74(15.4)	64(13.3)	224(46.5)	482(100.0)		
	하	13(16.7)	15(19.2)	16(20.5)	34(43.6)	78(100.0)		
보 호 자 직 업 별	농·어·목 축업	44(20.2)	31(14.2)	33(15.1)	110(50.5)	218(100.0)	18	34.28*
	상업	25(34.7)	13(18.1)	11(15.3)	23(31.9)	72(100.0)		
	공업	2(11.8)	7(41.2)	1(5.9)	7(41.2)	17(100.0)		
	공무원	10(19.6)	4(7.8)	7(13.7)	30(58.8)	51(100.0)		
	회사원	14(29.2)	4(8.3)	4(8.3)	26(54.2)	48(100.0)		
	자영업	20(33.3)	9(15.0)	7(11.7)	24(40.0)	60(100.0)		
기타	22(19.5)	23(20.4)	21(18.6)	47(41.6)	113(100.0)			
계		137(23.7)	91(15.7)	84(14.5)	267(46.1)	579(100.0)		

(* : p<0.05)

5)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만족도

< 표 6 >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만족도

(%)

문항 변인		대단히 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 이다	모르 겠다	계	d.f	χ^2
성 별	남	32(10.5)	103(33.9)	114(37.5)	47(15.5)	8(2.6)	304(100.0)	4	13.65**
	여	10(3.6)	81(29.5)	127(46.2)	47(17.1)	10(3.6)	275(100.0)		
학 교 별	농고	15(16.3)	26(28.3)	40(43.5)	8(8.7)	3(3.3)	92(100.0)	8	25.72***
	공고	6(3.2)	50(26.9)	84(45.2)	40(21.5)	6(3.2)	186(100.0)		
	상고	21(7.0)	108(35.9)	117(38.9)	46(15.3)	9(3.0)	301(100.0)		
생 활 수 준 별	상	3(15.8)	9(47.4)	6(31.6)	1(5.3)	-	19(100.0)	8	12.78
	중	30(6.2)	155(32.2)	207(42.9)	75(15.6)	15(3.1)	482(100.0)		
	하	9(11.5)	20(25.6)	28(35.9)	18(23.1)	3(3.8)	78(100.0)		
보 호 자 직 업 별	농·어· 목축업	11(5.0)	70(32.1)	90(41.3)	35(16.1)	12(5.5)	218(100.0)	24	28.26
	상업	7(9.7)	19(26.4)	27(37.5)	18(25.0)	1(1.4)	72(100.0)		
	공업	2(11.8)	6(35.3)	8(47.1)	1(5.9)	-	17(100.0)		
	공무원	5(9.8)	13(25.5)	24(47.1)	7(13.7)	2(3.9)	51(100.0)		
	회사원	1(2.1)	12(25.0)	24(50.0)	10(20.8)	1(2.1)	48(100.0)		
	자영업	5(8.3)	18(30.0)	27(45.0)	10(16.7)	-	60(100.0)		
기타	11(9.7)	46(40.7)	41(36.3)	13(11.5)	2(1.8)	113(100.0)			
계		42(7.3)	184(31.8)	241(41.6)	94(16.2)	18(3.1)	579(100.0)		

(** : p<0.01, *** : p<0.005)

2. 進路에 對한 關心과 態度

6) 자신의 가장 큰 고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결과
는 다음 < 표 7 >과 같다.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진학문제”(37.3%), “취업문제”(18.7%), “기능사 자격 취득 문제”(15.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도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학교 과정에서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지도가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 “이성문제”도 8.1%나 되어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 학교별 및 생활수준별로는 $P < 0.005$ 수준에서, 보호자 직업별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29.3%)·여(46.2%) 공히 “진학”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으며, 더욱이 여학생(46.2%)은 반 정도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성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는 남학생(11.8%)이 여학생(4.0%)보다 3배 정도의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별로 보면 공고의 경우는 절반이 넘는 51.1%가 “진학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농고는 23.9%가 “취업문제”로 고민하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 보면 상류층은 “취업”(26.3%)이 “진학”(21.1%)보다, 중류층은 “진학”(39.8%)이 “취업”(17.4%)보다, 하류층은 “진학”(25.6%)과 “취업”(24.4%)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모든 직업이 가장 큰 고민거리로는 “진학” 문제라고 했으며 “취업”문제는 농·어·목축업(23.9%)이 “성적” 문제는 공무원(13.7%)이, “이성” 문제는 상업(11.1%)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6) 자신의 가장 큰 고민

< 표 7 > 자신의 가장 큰 고민

(%)

변인	문항	건강	취업	가족	성적	친구	진화	이성	학비	선·후 배	기능사 자격취득	계	d.f	χ^2
성별	남	14 (4.6)	69 (22.7)	15 (4.9)	12 (3.9)	11 (3.6)	89 (29.3)	36 (11.8)	8 (2.6)	1 (0.3)	49 (16.1)	304 (100.0)	9	50.38***
	여	1 (0.4)	39 (14.2)	6 (2.2)	26 (9.5)	17 (6.2)	127 (46.2)	11 (4.0)	6 (2.2)	-	42 (15.3)	275 (100.0)		
학교별	농고	6 (6.5)	22 (23.9)	7 (7.6)	3 (3.3)	2 (2.2)	18 (19.6)	9 (9.8)	4 (4.3)	1 (1.1)	20 (21.7)	92 (100.0)	18	56.96***
	공고	3 (1.6)	24 (12.9)	5 (2.7)	17 (9.1)	9 (4.8)	95 (51.1)	14 (7.5)	3 (1.6)	-	16 (8.6)	186 (100.0)		
	상고	6 (2.0)	62 (20.6)	9 (3.0)	18 (6.0)	17 (5.6)	103 (34.2)	24 (8.0)	7 (2.3)	-	55 (18.3)	301 (100.0)		
생활수준별	상	3 (15.8)	5 (26.3)	1 (5.3)	1 (5.3)	2 (10.5)	4 (21.1)	1 (5.3)	-	-	2 (10.5)	19 (100.0)	18	38.13***
	중	9 (1.9)	84 (17.4)	16 (3.3)	34 (7.1)	23 (4.8)	192 (39.8)	39 (8.1)	9 (1.9)	-	76 (15.8)	482 (100.0)		
	하	3 (3.8)	19 (24.4)	4 (5.1)	3 (3.8)	3 (3.8)	20 (25.6)	7 (9.0)	5 (6.4)	1 (1.3)	13 (16.7)	78 (100.0)		
보호 자 직 업 별	농어 목축업	6 (2.8)	52 (23.9)	4 (1.8)	10 (4.6)	15 (6.9)	71 (32.6)	16 (7.3)	6 (2.8)	-	38 (17.4)	218 (100.0)	54	76.84*
	상업	1 (1.4)	14 (19.4)	2 (2.8)	7 (9.7)	3 (4.2)	32 (44.4)	8 (11.1)	-	-	5 (6.9)	72 (100.0)		
	공업	-	2 (11.8)	2 (11.8)	1 (5.9)	-	8 (47.1)	1 (5.9)	-	-	3 (17.6)	17 (100.0)		
	공무원	2 (3.9)	4 (7.8)	1 (2.0)	7 (13.7)	4 (7.8)	24 (47.1)	3 (5.9)	-	1 (2.0)	5 (9.8)	51 (100.0)		
	회사원	-	5 (10.4)	3 (6.3)	4 (8.3)	2 (4.2)	19 (39.6)	3 (6.3)	1 (2.1)	-	11 (22.9)	48 (100.0)		
	자영업	4 (6.7)	6 (10.0)	4 (6.7)	1 (1.7)	1 (1.7)	30 (50.0)	5 (8.3)	2 (3.3)	-	7 (11.7)	60 (100.0)		
	기타	2 (1.8)	25 (22.1)	5 (4.4)	8 (7.1)	3 (2.7)	32 (28.3)	11 (9.7)	5 (4.4)	-	22 (19.5)	113 (100.0)		
계	15 (2.6)	108 (18.7)	21 (3.6)	38 (6.6)	28 (4.8)	216 (37.3)	47 (8.1)	14 (2.4)	1 (0.2)	91 (15.7)	579 (100.0)			

(* : p<0.05, *** : p<0.005)

7) 장래 진로와 직업에 대한 관심

평소에 자신의 장래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응은 < 표 8 >과 같다.

전체적인 응답 결과는 “자주하는 편이다”가 53.7%, “매우 자주하는 편이다”가 14.3%로 자주 생각하고 있는 학생을 68.0%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안 하는 편이다”가 4.1%, “전혀 안 한다”가 0.9%로 나타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소에 진로와 직업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P < 0.05$)과 생활수준별 ($P < 0.005$)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여학생(72.3%)이 남학생(64.2%)보다 장래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수준별로는 상류층(79.0%)이 중류층(68.1%)이나 하류층(65.4%)보다 장래를 더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진로 변경 계획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을 해오던중,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한 반응은 < 표 9 >와 같다.

전체적인 반응 경향을 보면 어떠한 기회가 주어져도 “바꾸지 않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39.9%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전공을 바꾸고 싶다”(23.0%),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 싶다”(14.5%), “휴학하여 다시 생각하고 싶다”가 (13.8%), “자퇴하여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겠다”(8.8%) 순으로 나타나, 이들(60.1%)은 모두가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진로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P<0.05$)과 학교별($P<0.005$)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여학생(62.9%)이 남학생(57.6%)보다 변경의사가 더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학교별로는 공고생들이 “바꾸지않겠다”가 36.6%밖에 안되, 가장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고, 농고생들은 “바꾸지 않겠다”가 51.1%나 되어 갈등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장래 진로에 대한 고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장래 진로문제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에 대한 반응은 < 표 10 >과 같다.

전체적인 반응경향은 “실력이 모자라 갖고 싶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까 불안하다”가 38.1%, “대학에 가야 하는데 실력이 문제다”가 24.8%의 높은 반응을 보여 역시 학생들에게는 취업과 진학이 가장 큰 고민거리임을 알 수 있다

배경 변인별로는 성별, 학교별 및 생활수준별로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성별로 보면 실력부족으로 취직이 곤란함을 느끼는 학생은 여학생(42.9%)이 남학생(32.6%)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대학엘 가야 하는데 실력이 문제라고 불안해 하는 학생은 남학생(24.0%)과 여학생(24.4%)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별로는 농고(20.7%)나 상고(19.6%)와는 달리 공고는 “대학엘 가야 하는데 실력이 문제다”라는 학생이 33.3%로 대학진학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고, “취직길은 어떻게 뚫어야 할지 걱정이다”가 7.5%로서 취업율이 가장 좋은 계열도 역시 공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 볼때 중(39.2%)·하류층 (33.3%)은 취업에, 상류층 (21.1%)은 진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장래 진로와 직업에 대한 관심

< 표 8 > 장래 진로와 직업에 대한 관심

(%)

변인	문항	관심 정도					계	d.f	χ^2
		전혀 안함	안하는 편임	그저 그렇다	자주하는 편임	매우 자주하는 편임			
성별	남	2(0.7)	19(6.3)	88(28.9)	155(51.0)	40(13.2)	304(100.0)	4	9.61*
	여	3(1.1)	5(1.8)	68(24.7)	156(56.7)	43(15.6)	275(100.0)		
학교별	농고	-	6(6.5)	34(37.0)	42(45.7)	10(10.9)	92(100.0)	8	10.86
	공고	2(1.1)	8(4.3)	40(21.5)	106(57.0)	30(16.1)	186(100.0)		
	상고	3(1.0)	10(3.3)	82(27.2)	163(54.2)	43(14.3)	301(100.0)		
생활수준별	상	-	1(5.3)	3(15.8)	11(57.9)	4(21.1)	19(100.0)	8	25.29***
	중	1(0.2)	17(3.5)	136(28.2)	262(54.4)	66(13.7)	482(100.0)		
	하	4(5.1)	6(7.7)	17(21.8)	38(48.7)	13(16.7)	78(100.0)		
보호자 직업별	농·어·목축업	1(0.5)	12(5.5)	59(27.1)	119(54.6)	27(12.4)	218(100.0)	24	16.65
	상업	-	3(4.2)	18(25.0)	42(58.3)	9(12.5)	72(100.0)		
	공업	-	1(5.9)	2(11.8)	12(70.6)	2(11.8)	17(100.0)		
	공무원	1(2.0)	1(2.0)	15(29.4)	28(54.9)	6(11.8)	51(100.0)		
	회사원	1(2.1)	1(2.1)	12(25.0)	24(50.0)	10(20.8)	48(100.0)		
	자영업	-	2(3.3)	13(21.7)	33(55.0)	12(20.0)	60(100.0)		
	기타	2(1.8)	4(3.5)	37(32.7)	53(46.9)	17(15.0)	113(100.0)		
계	5(0.9)	24(4.1)	156(26.9)	311(53.7)	83(14.3)	579(100.0)			

(* : p<0.05, *** : p<0.005)

8) 진로 변경 계획

< 표 9 > 진로 변경 계획

(%)

문항 변인		자퇴후인 문고전학	전공을바 꾸고싶다	다른학교 로전학	휴학하여 다시생각	바꾸지 않겠다	계	df	χ^2
성 별	남	28(9.2)	77(25.3)	33(10.9)	37(12.2)	129(42.4)	304(100.0)	4	9.84*
	여	23(8.4)	56(20.4)	51(18.5)	43(15.6)	102(37.1)	275(100.0)		
학 교 별	농고	5(5.4)	25(27.2)	6(6.5)	9(9.8)	47(51.1)	92(100.0)	8	28.12***
	공고	24(12.9)	39(21.0)	19(10.2)	36(19.4)	68(36.6)	186(100.0)		
	상고	22(7.3)	69(22.9)	59(19.6)	35(11.6)	116(38.5)	301(100.0)		
생 활 수 준 별	상	1(5.3)	6(31.6)	4(21.1)	2(10.5)	6(31.6)	19(100.0)	8	6.19
	중	40(8.3)	105(21.8)	69(14.3)	69(14.3)	199(41.3)	482(100.0)		
	하	10(12.8)	22(28.2)	11(14.1)	9(11.5)	26(33.3)	78(100.0)		
보 호 자 직 업 별	농·어· 목축업	15(6.9)	57(26.1)	39(17.9)	25(11.5)	82(37.6)	218(100.0)	24	32.91
	상업	10(13.9)	17(23.6)	7(9.7)	12(16.7)	26(36.1)	72(100.0)		
	공업	-	3(17.6)	3(17.6)	1(5.9)	10(58.8)	17(100.0)		
	공무원	7(13.7)	8(15.7)	4(7.8)	10(19.6)	22(43.1)	51(100.0)		
	회사원	2(4.2)	7(14.6)	12(25.0)	5(10.4)	22(45.8)	48(100.0)		
	자영업	5(8.3)	16(26.7)	3(5.0)	13(21.7)	23(38.3)	60(100.0)		
기타	12(10.6)	25(22.1)	16(14.2)	14(12.4)	46(40.7)	113(100.0)			
계		51(8.8)	133(23.0)	84(14.5)	80(13.8)	231(39.9)	579(100.0)		

(* : p<0.05, *** : p<0.005)

9) 장래 진로에 대한 고민

< 표 10 > 장래 진로에 대한 고민

(%)

변인	문항	상의할사 람이없음	실력부족 으로취직 곤란	어려운 취직관문	대학에진 학을해야 함	장래가 불안함	계	df	χ^2
성 별	남	33(10.9)	99(32.6)	33(10.9)	73(24.0)	66(21.7)	304(100.0)	4	12.24*
	여	30(10.9)	118(42.9)	27(9.8)	67(24.4)	33(12.0)	275(100.0)		
학 교 별	농고	9(9.8)	37(40.2)	12(13.0)	19(20.7)	15(16.3)	92(100.0)	8	17.62*
	공고	19(10.2)	55(29.6)	14(7.5)	62(33.3)	36(19.4)	186(100.0)		
	상고	35(11.6)	125(41.5)	34(11.3)	59(19.6)	48(15.9)	301(100.0)		
생 활 수 준 별	상	6(31.6)	2(10.5)	3(15.8)	4(21.1)	4(21.1)	19(100.0)	8	18.12*
	중	47(9.8)	189(39.2)	48(10.0)	122(25.3)	76(15.8)	482(100.0)		
	하	10(12.8)	26(33.3)	9(11.5)	14(17.9)	19(24.4)	78(100.0)		
보 호 자 직 업 별	농·어· 목축업	27(12.4)	85(39.0)	30(13.8)	39(17.9)	37(17.0)	218(100.0)	24	30.51
	상업	7(9.7)	23(31.9)	8(11.1)	23(31.9)	11(15.3)	72(100.0)		
	공업	1(5.9)	5(29.4)	2(11.8)	5(29.4)	4(23.5)	17(100.0)		
	공무원	2(3.9)	25(49.0)	-	13(25.5)	11(21.6)	51(100.0)		
	회사원	5(10.4)	12(25.0)	6(12.5)	13(27.1)	12(25.0)	48(100.0)		
	자영업	5(8.3)	24(40.0)	3(5.0)	19(31.7)	9(15.0)	60(100.0)		
기타	16(14.2)	43(38.1)	11(9.7)	28(24.8)	15(13.3)	113(100.0)			
계		16(14.2)	43(38.1)	11(9.7)	28(24.8)	15(13.3)	113(100.0)		

(* : p<0.05)

10) 전공학과와 적성과의 관계

교육현장에서 배우고 있는 전공학과와 적성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냐?에 대한 조사결과는 < 표 11 >과 같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관련성이 조금있다”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관련성이 없다”가 23.3%, “그저 그렇다”가 24.9%로 부정적인 견해가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기 위한 진로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과 학교별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성별로는 여학생(60.3%)이 남학생(50.7%)보다 전공학과와 적성과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학교별로는 상고(60.2%)가 농고(51.1%)나 공고(49.4%)에 비해 전공학과와 적성과는 관련성이 적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학술만을 앞세운 진학지도는 지양되어야 하겠다.

11) 현재 배우고 있는 실업과목의 활용성에 대한 인식

현재 자신이 재학중인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실업과목들이 졸업후, 사회에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반응은 < 표 12 >와 같다

전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가 8.6%, “도움이 될 것이다”가 47.0%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보는 학생이 반을 넘고 있다.

반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36.6%나 되어, 이들에 대한 각별한 지도와 관심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10) 전공학과와 적성과의 관계

< 표 11 > 전공학과와 적성과의 관계

(%)

변인	문항	관련성	관련성이	관련성	그저	모르겠다	계	df	χ^2
		이 많다	조금 있다	이 없다	그렇다				
성별	남	33(10.9)	117(38.5)	58(19.1)	71(23.4)	25(8.2)	304(100.0)	4	11.36*
	여	17(6.2)	92(33.5)	77(28.0)	73(26.5)	16(5.8)	275(100.0)		
학교별	농고	13(14.1)	32(34.8)	19(20.7)	20(21.7)	8(8.7)	92(100.0)	8	19.48*
	공고	18(9.7)	76(40.9)	33(17.7)	53(28.5)	6(3.2)	186(100.0)		
	상고	19(6.3)	101(33.6)	83(27.6)	71(23.6)	27(9.0)	301(100.0)		
생활수준별	상	2(10.5)	10(52.6)	4(21.1)	3(15.8)	-	19(100.0)	8	12.47
	중	35(7.3)	178(36.9)	112(23.2)	122(25.3)	35(7.3)	482(100.0)		
	하	13(16.7)	21(26.9)	19(24.4)	19(24.4)	6(7.7)	78(100.0)		
보호자 직업별	농·어·목축업	19(8.7)	83(38.1)	44(20.2)	53(24.3)	19(8.7)	218(100.0)	24	14.83
	상업	5(6.9)	26(36.1)	18(25.0)	17(23.6)	6(8.3)	72(100.0)		
	공업	1(5.9)	7(41.2)	5(29.4)	4(23.5)	-	17(100.0)		
	공무원	2(3.9)	16(31.4)	11(21.6)	18(35.3)	4(7.8)	51(100.0)		
	회사원	6(12.5)	18(37.5)	10(20.8)	10(20.8)	4(8.3)	48(100.0)		
	자영업	5(8.3)	22(36.7)	19(31.7)	12(20.0)	2(3.3)	60(100.0)		
	기타	12(10.6)	37(32.7)	28(24.8)	30(26.5)	6(5.3)	113(100.0)		
계	50(8.6)	209(36.1)	135(23.3)	144(24.9)	41(7.1)	579(100.0)			

(* : p<0.05)

11) 현재 배우고 있는 실업과목의 활용성에 대한 인식

< 표 12 > 실업과목의 활용성에 대한 인식

(%)

변인	문항	잘활용할 수있음	도움이 될것임	그저 그렇다	전혀활용 할수없음	모르겠다	계	df	χ^2
성별	남	28(9.2)	145(47.7)	81(26.6)	19(6.3)	31(10.2)	304(100.0)	4	8.68
	여	22(8.0)	127(46.2)	84(30.5)	28(10.2)	14(5.1)	275(100.0)		
학교별	농고	13(14.1)	36(39.1)	25(27.2)	6(6.5)	12(13.0)	92(100.0)	8	15.11
	공고	18(9.7)	86(46.2)	50(26.9)	21(11.3)	11(5.9)	186(100.0)		
	상고	19(6.3)	150(49.8)	90(29.9)	20(6.6)	22(7.3)	301(100.0)		
생활수준별	상	4(21.1)	7(36.8)	7(36.8)	1(5.3)	-	19(100.0)	8	12.82
	중	36(7.5)	232(48.1)	141(29.3)	37(7.7)	36(7.5)	482(100.0)		
	하	10(12.8)	33(42.3)	17(21.8)	9(11.5)	9(11.5)	78(100.0)		
보호자 직업별	농·어·목축업	13(6.0)	112(51.4)	65(29.8)	16(7.3)	12(5.5)	218(100.0)	24	35.67
	상업	9(12.5)	28(38.9)	22(30.6)	5(6.9)	8(11.1)	72(100.0)		
	공업	3(17.6)	10(58.8)	2(11.8)	-	2(11.8)	17(100.0)		
	공무원	2(3.9)	22(43.1)	14(27.5)	5(9.8)	8(15.7)	51(100.0)		
	회사원	2(4.2)	20(41.7)	19(39.6)	3(6.3)	4(8.3)	48(100.0)		
	자영업	4(6.7)	26(43.3)	16(26.7)	10(16.7)	4(6.7)	60(100.0)		
	기타	17(15.0)	54(47.8)	27(23.9)	8(7.1)	7(6.2)	113(100.0)		
계		50(8.6)	272(47.0)	165(28.5)	47(8.1)	45(7.8)	579(100.0)		

3. 職業에 對한 抱負

12) 進路 결정의 기준

학생들이 進路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를 조사한 결과는 < 표 13 >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69.1%가 “적성과 능력”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학생이고, 19.2%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 학교별 및 생활수준별로 $P < 0.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성별로는 여학생(78.2%)이 남학생(60.9%)보다 “적성과 능력”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별로는 공고(74.7%)가 상고(71.4%)나 농고(50.0%)보다는 “적성과 능력”에 비교적 더 비중을 두고 있고, 생활수준별로는 중류층(71.4%)이 상류층(63.2%)이나 하류층(56.4%)보다 더 “적성과 능력”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13) 進路 결정시 의논 상대

자신의 進路 결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누구와 맨 먼저 의논하고 싶은가? 라는 물음에 대한 반응은 < 표 14 >와 같다.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친구”와 의논하고 싶다가 35.1%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다음이 “부모(27.6%)”이고 “혼자 결정”하겠다는 학생도 10.9%의 반응을 보였다. “교사”를 의논상대로 보는 경우는 10.2%에 지나지 않아, 학교를 통해 각종 정보나 자료를 얻으려는 경향은 희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배경 변인별로는 보호자 직업별($P < 0.05$)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보호자 직업이 농·어·목축업(39.4%) 과 상업(40.3%) 및 자영업(33.3%) 인 경우는 進路를 결정할 때 먼저 “친구”와 의논해서 결정하고, 공업(41.2%)과 공무원(31.4%) 및 회사원(27.1%)은 進路결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가장 먼저 “부모”와 의논하겠다고 응답했다.

12) 진로 결정의 기준

< 표 13 > 진로 결정의 기준

(%)

변인	문항	적성과 능력	학력수준	가정형편	부모의 기대	본인의 희망	기타	계	d.f	χ^2
성별	남	185 (60.9)	24 (7.9)	12 (3.9)	8 (2.6)	71 (23.4)	4 (1.3)	304 (100.0)	5	29.13***
	여	215 (78.2)	18 (6.5)	1 (0.4)	1 (0.4)	40 (14.5)	-	275 (100.0)		
학교별	농고	46 (50.0)	9 (9.8)	7 (7.6)	6 (6.5)	21 (22.8)	3 (3.3)	92 (100.0)	10	51.56***
	공고	139 (74.7)	14 (7.5)	1 (0.5)	-	32 (17.2)	-	186 (100.0)		
	상고	215 (71.4)	19 (6.3)	5 (1.7)	3 (1.0)	58 (19.3)	1 (0.3)	301 (100.0)		
생활수준별	상	12 (63.2)	3 (15.8)	-	-	4 (21.1)	-	19 (100.0)	10	67.06***
	중	344 (71.4)	31 (6.4)	2 (0.4)	6 (1.2)	96 (19.9)	3 (0.6)	482 (100.0)		
	하	44 (56.4)	8 (10.3)	11 (14.1)	3 (3.8)	11 (14.1)	1 (1.3)	78 (100.0)		
보호자직업별	농·어· 목축업	154 (70.6)	21 (9.6)	3 (1.4)	1 (0.5)	38 (17.4)	1 (0.5)	218 (100.0)	30	21.10
	상업	47 (65.3)	6 (8.3)	2 (2.8)	1 (1.4)	15 (20.8)	1 (1.4)	72 (100.0)		
	공업	10 (58.8)	1 (5.9)	-	1 (5.9)	5 (29.4)	-	17 (100.0)		
	공무원	35 (68.6)	1 (2.0)	2 (3.9)	1 (2.0)	11 (21.6)	1 (2.0)	51 (100.0)		
	회사원	35 (72.9)	2 (4.2)	-	1 (2.1)	10 (20.8)	-	48 (100.0)		
	자영업	46 (76.7)	2 (3.3)	2 (3.3)	1 (1.7)	9 (15.0)	-	60 (100.0)		
	기타	73 (64.6)	9 (8.0)	4 (3.5)	3 (2.7)	23 (20.4)	1 (0.9)	113 (100.0)		
계	400 (69.1)	42 (7.3)	13 (2.2)	9 (1.6)	111 (19.2)	4 (0.7)	579 (100.0)			

(*** : p<0.005)

13) 진로 결정시 의논 상대

< 표 14 > 진로 결정시 의논 상대

(%)

문항 변인		부모	교사	선배	친구	친척	형제	자신	계	d.f	χ^2
성별	남	82 (27.0)	30 (9.9)	10 (3.3)	110 (36.2)	3 (1.0)	26 (8.6)	43 (14.1)	304 (100.0)	6	11.29
	여	78 (28.4)	29 (10.5)	13 (4.7)	93 (33.8)	4 (1.5)	38 (13.8)	20 (7.3)	275 (100.0)		
학교 별	농고	25 (27.2)	11 (12.0)	3 (3.3)	34 (37.0)	2 (2.2)	7 (7.6)	10 (10.9)	92 (100.0)	12	9.65
	공고	41 (22.0)	23 (12.4)	7 (3.8)	70 (37.6)	1 (0.5)	22 (11.8)	22 (11.8)	186 (100.0)		
	상고	94 (31.2)	25 (8.3)	13 (4.3)	99 (32.9)	4 (1.3)	35 (11.6)	31 (10.3)	301 (100.0)		
생활 수 준 별	상	3 (15.8)	4 (21.1)	1 (5.3)	9 (47.4)	-	1 (5.3)	1 (5.3)	19 (100.0)	12	11.15
	중	137 (28.4)	49 (10.2)	16 (3.3)	169 (35.1)	5 (1.0)	54 (11.2)	52 (10.8)	482 (100.0)		
	하	20 (25.6)	6 (7.7)	6 (7.7)	25 (32.1)	2 (2.6)	9 (11.5)	10 (12.8)	78 (100.0)		
보호 자 직 업 별	농·어 목축업	61 (28.0)	18 (8.3)	10 (4.6)	86 (39.4)	2 (0.9)	26 (11.9)	15 (6.9)	218 (100.0)	36	52.74*
	상업	15 (20.8)	10 (13.9)	3 (4.2)	29 (40.3)	-	7 (9.7)	8 (11.1)	72 (100.0)		
	공업	7 (41.2)	-	2 (11.8)	3 (17.6)	-	2 (11.8)	3 (17.6)	17 (100.0)		
	공무원	16 (31.4)	3 (5.9)	2 (3.9)	15 (29.4)	-	2 (3.9)	13 (25.5)	51 (100.0)		
	회사원	13 (27.1)	8 (16.7)	2 (4.2)	10 (20.8)	2 (4.2)	8 (16.7)	5 (10.4)	48 (100.0)		
	자영업	13 (21.7)	6 (10.0)	1 (1.7)	20 (33.3)	-	10 (16.7)	10 (16.7)	60 (100.0)		
	기타	35 (31.0)	14 (12.4)	3 (2.7)	40 (35.4)	3 (2.7)	9 (8.0)	9 (8.0)	113 (100.0)		
계	160 (27.6)	59 (10.2)	23 (4.0)	203 (35.1)	7 (1.2)	64 (11.1)	63 (10.9)	579 (100.0)			

(* : p<0.05)

14) 고등학교 졸업후 진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 표 15 >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 579명 중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학생은 63.4%, “취업하겠다”는 학생은 14.7%순으로 나타났으나, “학비마련후 진학하겠다”는 학생(7.4%)과 “야간대학에 다니겠다”는 학생(7.8%)까지 진학희망자로 본다면 무려 78.6%의 많은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 학교별 및 생활수준별로 $P < 0.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성별로는 여학생(85.4%)이 남학생(72.3%)보다 대학진학에 대한 집념이 대단히 강한 편이다. 학교별로는 특히 공고의 경우 취업희망자가 불과 3.8%에 지나지 않아 상고(17.9%)나 농고(26.1%)보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하류층(26.9%)이 중류층(12.9%)이나 상류층(10.5%)보다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5)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 표 16 >과 같다. 취업 희망 응답자 128명 중 “자기의 적성을 살리기 위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44.5%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25.0% 학생이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취업을 하려는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 15.6%는 “진학에 필요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5.5%는 “진학은 하고 싶으나 실력이 모자라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취업을 희망하면서도 기회가 주어 진다면 진학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14) 고등학교 졸업후 진로

< 표 15 > 고등학교 졸업후 진로

(%)

변인	문항	취업	학비마련 후진학	대학진학	사업	취직한후 야간대학	계획없음	계	d.f	χ^2
성 별	남	60 (19.7)	22 (7.2)	184 (60.5)	8 (2.6)	14 (4.6)	16 (5.3)	304 (100.0)	5	21.72***
	여	25 (9.1)	21 (7.6)	183 (66.5)	4 (1.5)	31 (11.3)	11 (4.0)	275 (100.0)		
학 교 별	농고	24 (26.1)	8 (8.7)	46 (50.0)	3 (3.3)	4 (4.3)	7 (7.6)	92 (100.0)	10	54.21***
	공고	7 (3.8)	8 (4.3)	153 (82.3)	3 (1.6)	10 (5.4)	5 (2.7)	186 (100.0)		
	상고	54 (17.9)	27 (9.0)	168 (55.8)	6 (2.0)	31 (10.3)	15 (5.0)	301 (100.0)		
생 활 수 준 별	상	2 (10.5)	2 (10.5)	12 (63.2)	2 (10.5)	1 (5.3)	-	19 (100.0)	10	35.13***
	중	62 (12.9)	29 (6.0)	321 (66.6)	7 (1.5)	41 (8.5)	22 (4.6)	482 (100.0)		
	하	21 (26.9)	12 (15.4)	34 (43.6)	3 (3.8)	3 (3.8)	5 (6.4)	78 (100.0)		
보 호 자 직 업 별	농·어 목축업	37 (17.0)	13 (6.0)	140 (64.2)	3 (1.4)	21 (9.6)	4 (1.8)	218 (100.0)	30	41.79
	상업	10 (13.9)	5 (6.9)	47 (65.3)	1 (1.4)	4 (5.6)	5 (6.9)	72 (100.0)		
	공업	1 (5.9)	2 (11.8)	12 (70.6)	-	-	2 (11.8)	17 (100.0)		
	공무 원	3 (5.9)	3 (5.9)	35 (68.6)	2 (3.9)	3 (5.9)	5 (9.8)	51 (100.0)		
	회사 원	4 (8.3)	3 (6.3)	34 (70.8)	1 (2.1)	5 (10.4)	1 (2.1)	48 (100.0)		
	자영 업	3 (5.0)	7 (11.7)	41 (68.3)	3 (5.0)	3 (5.0)	3 (5.0)	60 (100.0)		
	기타	27 (23.9)	10 (8.8)	58 (51.3)	2 (1.8)	9 (8.0)	7 (6.2)	113 (100.0)		
계	85 (14.7)	43 (7.4)	367 (63.4)	12 (2.1)	45 (7.8)	27 (4.7)	579 (100.0)			

(*** : p<0.005)

15)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 표 16 >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

문항 변인		가정에 도움	진학학 비마련	적성 발휘	진학하 기에실 력부족	전공과 다른분 야진출	전공지 식활용	진학이 필요 없음	계	d.f	χ^2
성 별	남	20 (24.4)	10 (12.2)	43 (52.4)	2 (2.4)	3 (3.7)	2 (2.4)	2 (2.4)	82 (100.0)	6	9.17
	여	12 (26.1)	10 (21.7)	14 (30.4)	5 (10.9)	2 (4.3)	1 (2.2)	2 (4.3)	46 (100.0)		
학 교 별	농고	11 (34.4)	3 (9.4)	15 (46.9)	1 (3.1)	1 (3.1)	-	1 (3.1)	32 (100.0)	12	15.70
	공고	1 (6.7)	4 (26.7)	5 (33.3)	3 (20.0)	-	1 (6.7)	1 (6.7)	15 (100.0)		
	상고	20 (24.7)	13 (16.0)	37 (45.7)	3 (3.7)	4 (4.9)	2 (2.5)	2 (2.5)	81 (100.0)		
생 활 수 준 별	상	-	1 (25.0)	3 (75.0)	-	-	-	-	4 (100.0)	12	12.28
	중	21 (23.1)	11 (12.1)	41 (45.1)	7 (7.7)	5 (5.5)	2 (2.2)	4 (4.4)	91 (100.0)		
	하	11 (33.3)	8 (24.2)	13 (39.4)	-	-	1 (3.0)	-	33 (100.0)		
보 호 자 직 업 별	농·어 목축업	12 (24.0)	7 (14.0)	25 (50.0)	2 (4.0)	1 (2.0)	-	3 (6.0)	50 (100.0)	36	38.66
	상업	1 (6.7)	3 (20.0)	8 (53.3)	1 (6.7)	1 (6.7)	-	1 (6.7)	15 (100.0)		
	공업	1 (33.3)	1 (33.3)	1 (33.3)	-	-	-	-	3 (100.0)		
	공무원	-	1 (16.7)	3 (50.0)	1 (16.7)	1 (16.7)	-	-	6 (100.0)		
	회사원	2 (28.6)	1 (14.3)	3 (42.9)	-	1 (14.3)	-	-	7 (100.0)		
	자영업	4 (40.0)	1 (10.0)	2 (20.0)	-	1 (10.0)	2 (20.0)	-	10 (100.0)		
	기타	12 (32.4)	6 (16.2)	15 (40.5)	3 (8.1)	-	1 (2.7)	-	37 (100.0)		
계	32 (25.0)	20 (15.6)	57 (44.5)	7 (5.5)	5 (3.9)	3 (2.3)	4 (3.1)	128 (100.0)			

16)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이유는 < 표 17 >과 같다. 진학 희망 응답자 367명 중 “훌륭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가 34.6%, “학벌이 중요한 사회이므로”가 19.9%, “대우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가 16.3%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이 보다 높은 학문연구와 진리를 탐구하여 자신의 발전과 사회에 봉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며 수단일 뿐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배경 변인별로는 성별($P < 0.05$)에서 만이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성별로는 남·여 공히 대학진학을 “훌륭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와 “학벌이 중요한 사회이므로” 라고 응답하고 있으나, 다른점은 남학생(16.3%)은 “부모와 주위 사람들의 권유” 때문으로, 여학생(16.9%)은 “대우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17) 졸업후 직장에서의 성공 여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하여 직장생활에 충실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반응은 < 표 18 >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성공은 어렵지만 만족할 수 있다고 본다”가 52.5%,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가 16.4% 순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반면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성공은 어렵다”고 보는 학생도 10.5%나 되어 이는 결코 경시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배경 변인별로는 성별($P < 0.005$)과 학교별($P < 0.05$)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성별로는 남(68.4%)·여(69.4%)가 비슷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는 학생은 남학생(21.4%)이 여학생(10.9%)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별로는 공고(59.7%)가 농고(75.0%)나 상고(72.7%)보다 직장생활에 충실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반응이 낮은 반면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성공은 어렵다고 보는 학생이 18.3%나 되어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4. 職業 選擇 基準

18) 가장 희망하는 직업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할 때 모든 여건이 허용한다면 가장 원하는 직업은 무엇이나?라는 물음에 대한 반응은 < 표 19 >와 같다.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전문직과 기술직”이 52.7%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여, 자기 전공에 부합되고 능력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호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배경 변인별로는 성별과 학교별에서는 $P < 0.01$ 수준에서, 생활수준별과 보호자 직업별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성별로는 남·여학생 모두 “전문·기술직”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남학생(13.8%)은 “서비스 직”을, 여학생(16.0%)은 “사무직”을 희망하고 있다.

학교별로는 농고가 전공과목과는 무관한 “서비스”직에 23.9%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공고는 11.3%가 “사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전문·기술직”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는 이외에 상류층(21.1%)과 하류층(14.1%)은 “숙련직”을, 중류층(13.1%)은 “사무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자 직업별로는 “농림축산업”을 원하는 학생이 전체 응답자 중 단 2명 뿐이었다.

16)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

< 표 17 >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

(%)

문항 변인	좋은직 장마련	학문 연구	훌륭한 전문가	국가에 봉사	학벌중 시사회	부모의 권유	지위 획득	계	d.f	χ^2	
성 별	남	29 (15.8)	9 (4.9)	66 (35.9)	5 (2.7)	32 (17.4)	30 (16.3)	13 (7.1)	184 (100.0)	6	13.72*
	여	31 (16.9)	23 (12.6)	61 (33.3)	3 (1.6)	41 (22.4)	15 (8.2)	9 (4.9)	183 (100.0)		
학 교 별	농고	6 (13.0)	2 (4.3)	21 (45.7)	2 (4.3)	7 (15.2)	4 (8.7)	4 (8.7)	46 (100.0)	12	15.00
	공고	23 (15.0)	12 (7.8)	58 (37.9)	-	34 (22.2)	18 (11.8)	8 (5.2)	153 (100.0)		
	상고	31 (18.5)	18 (10.7)	48 (28.6)	6 (3.6)	32 (19.0)	23 (13.7)	10 (6.0)	168 (100.0)		
생 활 수 준 별	상	1 (8.3)	-	7 (58.3)	1 (8.3)	2 (16.7)	-	1 (8.3)	12 (100.0)	12	8.94
	중	53 (16.5)	30 (9.3)	109 (34.0)	7 (2.2)	63 (19.6)	40 (12.5)	19 (5.9)	321 (100.0)		
	하	6 (17.6)	2 (5.9)	11 (32.4)	-	8 (23.5)	5 (14.7)	2 (5.9)	34 (100.0)		
보 호 자 직 업 별	농·어 목축업	26 (18.6)	12 (8.6)	42 (30.0)	4 (2.9)	30 (21.4)	18 (12.9)	8 (5.7)	140 (100.0)	36	41.61
	상업	5 (10.6)	2 (4.3)	19 (40.4)	3 (6.4)	9 (19.1)	7 (14.9)	2 (4.3)	47 (100.0)		
	공업	2 (16.7)	-	8 (66.7)	-	-	1 (8.3)	1 (8.3)	12 (100.0)		
	공무원	5 (14.3)	3 (8.6)	8 (22.9)	-	13 (37.1)	4 (11.4)	2 (5.7)	35 (100.0)		
	회사원	8 (23.5)	5 (14.7)	9 (26.5)	-	4 (11.8)	5 (14.7)	3 (8.8)	34 (100.0)		
	자영업	5 (12.2)	5 (12.2)	12 (29.3)	-	12 (29.3)	4 (9.8)	3 (7.3)	41 (100.0)		
	기타	9 (15.5)	5 (8.6)	29 (50.0)	1 (1.7)	5 (8.6)	6 (10.3)	3 (5.2)	58 (100.0)		
계	60 (16.3)	32 (8.7)	127 (34.6)	8 (2.2)	73 (19.9)	45 (12.3)	22 (6.0)	367 (100.0)			

(* : p<0.05)

17) 졸업후 직장에서의 성공 여부

< 표 18 > 졸업후 직장에서의 성공 여부

(%)

문항		반드시 성공	어렵지만 만족	성공에 지장	운이 결정	불가능	모르겠다	계	df	χ^2
성별	남	65 (21.4)	143 (47.0)	37 (12.2)	32 (10.5)	6 (2.0)	21 (6.9)	304 (100.0)	5	16.83***
	여	30 (10.9)	161 (58.5)	24 (8.7)	27 (9.8)	5 (1.8)	28 (10.2)	275 (100.0)		
학교별	농고	21 (22.8)	48 (52.2)	5 (5.4)	8 (8.7)	2 (2.2)	8 (8.7)	92 (100.0)	10	22.74*
	공고	27 (14.5)	84 (45.2)	34 (18.3)	22 (11.8)	3 (1.6)	16 (8.6)	186 (100.0)		
	상고	47 (15.6)	172 (57.1)	22 (7.3)	29 (9.6)	6 (2.0)	25 (8.3)	301 (100.0)		
생활수준별	상	1 (5.3)	13 (68.4)	1 (5.3)	1 (5.3)	-	3 (15.8)	19 (100.0)	10	14.20
	중	78 (16.2)	252 (52.3)	52 (10.8)	49 (10.2)	7 (1.5)	44 (9.1)	482 (100.0)		
	하	16 (20.5)	39 (50.0)	8 (10.3)	9 (11.5)	4 (5.1)	2 (2.6)	78 (100.0)		
보호자직업별	농·어·목축업	30 (13.8)	122 (56.0)	21 (9.6)	25 (11.5)	3 (1.4)	17 (7.8)	218 (100.0)	30	38.60
	상업	18 (25.0)	29 (40.3)	9 (12.5)	10 (13.9)	3 (4.2)	3 (4.2)	72 (100.0)		
	공업	1 (5.9)	10 (58.8)	3 (17.6)	2 (11.8)	-	1 (5.9)	17 (100.0)		
	공무원	7 (13.7)	26 (51.0)	6 (11.8)	6 (11.8)	2 (3.9)	4 (7.8)	51 (100.0)		
	회사원	9 (18.8)	20 (41.7)	4 (8.3)	4 (8.3)	1 (2.1)	10 (20.8)	48 (100.0)		
	자영업	9 (15.0)	27 (45.0)	8 (13.3)	7 (11.7)	2 (3.3)	7 (11.7)	60 (100.0)		
	기타	21 (18.6)	70 (61.9)	10 (8.8)	5 (4.4)	-	7 (6.2)	113 (100.0)		
계	95 (16.4)	304 (52.5)	61 (10.5)	59 (10.2)	11 (1.9)	49 (8.5)	579 (100.0)			

(* : p<0.05, *** : p<0.005)

18) 가장 희망하는 직업

< 표 19 > 가장 희망하는 직업

(%)

변인	문항	숙련직	서비스직	생산직	판매직	농림축산업	사무직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계	d.f	χ^2
성별	남	34 (11.2)	42 (13.8)	26 (8.6)	17 (5.6)	2 (0.7)	28 (9.2)	22 (7.2)	133 (43.8)	304 (100.0)	7	51.74**
	여	25 (9.1)	12 (4.4)	4 (1.5)	10 (3.6)	-	44 (16.0)	8 (2.9)	172 (62.5)	275 (100.0)		
학교별	농고	16 (17.4)	22 (23.9)	7 (7.6)	4 (4.3)	2 (2.2)	6 (6.5)	6 (6.5)	29 (31.5)	92 (100.0)	14	61.70**
	공고	13 (7.0)	12 (6.5)	12 (6.5)	7 (3.8)	-	21 (11.3)	7 (3.8)	114 (61.3)	186 (100.0)		
	상고	30 (10.0)	20 (6.6)	11 (3.7)	16 (5.3)	-	45 (15.0)	17 (5.6)	162 (53.8)	301 (100.0)		
생활수준별	상	4 (21.1)	2 (10.5)	1 (5.3)	1 (5.3)	1 (5.3)	3 (15.8)	1 (5.3)	6 (31.6)	19 (100.0)	14	24.47*
	중	44 (9.1)	45 (9.3)	24 (5.0)	20 (4.1)	1 (0.2)	63 (13.1)	27 (5.6)	258 (53.5)	482 (100.0)		
	하	11 (14.1)	7 (9.0)	5 (6.4)	6 (7.7)	-	6 (7.7)	2 (2.6)	41 (52.6)	78 (100.0)		
보호자 직업별	농·어·목축업	20 (9.2)	23 (10.6)	18 (8.3)	8 (3.7)	2 (0.9)	35 (16.1)	11 (5.0)	101 (46.3)	218 (100.0)	42	58.26*
	상업	7 (9.7)	5 (6.9)	3 (4.2)	6 (8.3)	-	13 (18.1)	4 (5.6)	34 (47.2)	72 (100.0)		
	공업	1 (5.9)	1 (5.9)	1 (5.9)	-	-	-	1 (5.9)	13 (76.5)	17 (100.0)		
	공무원	8 (15.7)	2 (3.9)	-	2 (3.9)	-	7 (13.7)	4 (7.8)	28 (54.9)	51 (100.0)		
	회사원	5 (10.4)	-	1 (2.1)	3 (6.3)	-	5 (10.4)	2 (4.2)	32 (66.7)	48 (100.0)		
	자영업	9 (15.0)	10 (16.7)	-	-	-	1 (1.7)	2 (3.3)	38 (63.3)	60 (100.0)		
	기타	9 (8.0)	13 (11.5)	7 (6.2)	8 (7.1)	-	11 (9.7)	6 (5.3)	59 (52.2)	113 (100.0)		
계	59 (10.2)	54 (9.3)	30 (5.2)	27 (4.7)	2 (0.3)	72 (12.4)	30 (5.2)	305 (52.7)	579 (100.0)			

(* : p<0.05, ** : p<0.01)

19) 직업 선택 기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반응은 < 표 20 >과 같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학생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적성과 흥미”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57.7%로 가장 높았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25.1%, “경제적 안정성”이 10.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임금이나 출세의 가능성보다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고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경 변인별로는 성별과 학교별에서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성별로는 남·여가 서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남학생(10.1%)이 여학생(4.0%)에 비해 임금이나 승진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별로 볼 때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적성과 흥미”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학교는 상고(63.8%)이며, “자신의 능력”에 두는 학교는 농고(34.8%)로 나타나고 있다.

20) 직업 선택시 부모와 의견이 다를 경우의 태도

장래 직업을 선택할 때 부모와 의견이 서로 상반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조사결과는 < 표 21 >과 같다.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부모님과 의견이 다를 경우 “자신이 판단하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학생이 56.1%로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다음은 “그때 가 봐야 알겠다”는 학생이 33.2%로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장래 직업을 선택할 때는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하겠다”는 학생이 9.3%로 전체 응답자의 1할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 직업 선택 기준

< 표 20 > 직업 선택 기준

(%)

변인	문항	적성과 흥미	자신의 능력	임금수준	승진과출 세가능성	국가에의 공헌도	경제적 안정성	계	d.f	χ^2
성 별	남	158(52.0)	83(27.3)	22(7.2)	8(2.6)	1(0.3)	32(10.5)	304(100.0)	5	13.01*
	여	176(64.0)	62(22.5)	8(2.9)	3(1.1)	-	26(9.5)	275(100.0)		
학 교 별	농고	43(46.7)	32(34.8)	6(6.5)	1(1.1)	1(1.1)	9(9.8)	92(100.0)	10	20.29*
	공고	99(53.2)	47(25.3)	12(6.5)	3(1.6)	-	25(13.4)	186(100.0)		
	상고	192(63.8)	66(21.9)	12(4.0)	7(2.3)	-	24(8.0)	301(100.0)		
생 활 수 준 별	상	12(63.2)	5(26.3)	1(5.3)	-	-	1(5.3)	19(100.0)	10	2.30
	중	277(57.5)	123(25.5)	25(5.2)	9(1.9)	1(0.2)	47(9.8)	482(100.0)		
	하	45(57.7)	17(21.8)	4(5.1)	2(2.6)	-	10(12.8)	78(100.0)		
보 호 자 직 업 별	농·어 목축업	120(55.0)	56(25.7)	16(7.3)	5(2.3)	-	21(9.6)	218(100.0)	30	31.68
	상업	43(59.7)	14(19.4)	6(8.3)	-	-	9(12.5)	72(100.0)		
	공업	15(88.2)	1(5.9)	-	-	-	1(5.9)	17(100.0)		
	공무 원	29(56.9)	17(33.3)	1(2.0)	1(2.0)	-	3(5.9)	51(100.0)		
	회사 원	27(56.3)	14(29.2)	1(2.1)	-	-	6(12.5)	48(100.0)		
	자영 업	37(61.7)	11(18.3)	2(3.3)	2(3.3)	1(1.7)	7(11.7)	60(100.0)		
기타	63(55.8)	32(28.3)	4(3.5)	3(2.7)	-	11(9.7)	113(100.0)			
계		334(57.7)	145(25.0)	30(5.2)	11(1.9)	1(0.2)	58(10.0)	579(100.0)		

(* : p<0.05)

20) 직업 선택시 부모와 의견이 다를 경우의 태도

< 표 21 > 직업 선택시 부모와 의견이 다를 경우의 태도

(%)

변인	문항	부모님 의견존중	자신이결정	그때가봐야 알겠다	모르겠다	계	d.f	χ ²
성 별	남	33(10.9)	165(54.3)	100(32.9)	6(2.0)	304(100.0)	3	3.63
	여	21(7.6)	160(58.2)	92(33.5)	2(0.7)	275(100.0)		
학 교 별	농고	11(12.0)	42(45.7)	38(41.3)	1(1.1)	92(100.0)	6	11.14
	공고	15(8.1)	115(61.8)	51(27.4)	5(2.7)	186(100.0)		
	상고	28(9.3)	168(55.8)	103(34.2)	2(0.7)	301(100.0)		
생 활 수 준 별	상	2(10.5)	12(63.2)	5(26.3)	-	19(100.0)	6	6.85
	중	45(9.3)	276(57.3)	156(32.4)	5(1.0)	482(100.0)		
	하	7(9.0)	37(47.4)	31(39.7)	3(3.8)	78(100.0)		
보 호 자 직 업 별	농·아 목축업	21(9.6)	120(55.0)	74(33.9)	3(1.4)	218(100.0)	18	15.43
	상업	6(8.3)	36(50.0)	28(38.9)	2(2.8)	72(100.0)		
	공업	3(17.6)	9(52.9)	5(29.4)	-	17(100.0)		
	공무원	4(7.8)	29(56.9)	16(31.4)	2(3.9)	51(100.0)		
	회사원	2(4.2)	29(60.4)	17(35.4)	-	48(100.0)		
	자영업	4(6.7)	42(70.0)	14(23.3)	-	60(100.0)		
	기타	14(12.4)	60(53.1)	38(33.6)	1(0.9)	113(100.0)		
계	54(9.3)	325(56.1)	192(33.2)	8(1.4)	579(100.0)			

5. 職業觀

21)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조건

남보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 어떤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반응은 < 표 22 >와 같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남보다 “실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학생이 5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학생이 28.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력”(8.5%)이나 “권력 또는 배경”(1.6%)이 중요하다고 보는 점에서는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고 건전한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경 변인별로는 성별($P < 0.005$), 학교별($P < 0.05$) 그리고 생활수준별($P < 0.01$)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성별로는 남·여가 서로 비슷한 생각들이나 “외모”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남학생(2.0%)이 여학생(1.1%)보다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학교별로는 농고(43.5)가 공고(22.6%)나 상고(26.6%)와는 달리 “특별한 기술”을 첫번째로 꼽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도 상류층(68.4%)은 “특별한 기술”을, 중류층(56.4%)과 하류층(50.0%)은 “실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2) 장래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는 원인

학생들이 장래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반응은 < 표 23 >과 같다.

전체적인 반응 경향은 “실력이 부족해서”라는 학생이 66.7%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다음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라는 학생(17.4%)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졸이어서”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6.6%이고, “권력이나 배경이 없어서” 못할 것이라는 경우도 5.9%나 되어 학벌이나 금권만능주의 사고방식을 경계해야 하겠다.

배경 변인별로는 성별($P < 0.01$)에서 만이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성별로 보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는 원인을 “실력 부족”이라고 보는 학생은 여학생(70.2%)이 더 많고 “특별한 기술 부족”이라고 하는 학생은 남학생(19.7%)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3) 미래의 인간상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물음에 대한 반응은 < 표 24 >와 같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장래에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고 보람있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학생이 39.7%로 가장 많았고, “내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갖고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학생이 28.8% 순으로 나타나 다수의 남·여 학생들이 건전한 인생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는 생활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한 사람”이 되고, “출세하여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학생들도 18.8%나 되어 인성지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배경 변인별로는 성별과 학교별로 $P < 0.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성별로는 여학생(77.4%)이 남학생(60.5%)보다 떳떳하고 보람있게 살아가겠다는 경향이 높은 반면 남학생(27.9%)은 여학생(14.5%)에 비해 부유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별로는 떳떳하고 보람있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반응이 농고(53.2%)나 공고(67.2%)보다는 상고(74.1%)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반응은 농고(18.5%)가 두드러지게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21)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조건

< 표 22 >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조건

(%)

문항 변인		학력	경제력	특별한 기술	권력이나 배경	실력	외모	계	df	χ^2
성 별	남	25 (8.2)	25 (8.2)	109 (35.9)	4 (1.3)	135 (44.4)	6 (2.0)	304 (100.0)	5	33.34***
	여	24 (8.7)	9 (3.3)	53 (19.3)	5 (1.8)	181 (65.8)	3 (1.1)	275 (100.0)		
학 교 별	농고	6 (6.5)	7 (7.6)	40 (43.5)	2 (2.2)	35 (38.0)	2 (2.2)	92 (100.0)	10	18.72*
	공고	18 (9.7)	11 (5.9)	42 (22.6)	4 (2.2)	109 (58.6)	2 (1.1)	186 (100.0)		
	상고	25 (8.3)	16 (5.3)	80 (26.6)	3 (1.0)	172 (57.1)	5 (1.7)	301 (100.0)		
생 활 수 준 별	상	1 (5.3)	-	13 (68.4)	-	5 (26.3)	-	19 (100.0)	10	24.62**
	중	39 (8.1)	25 (5.2)	130 (27.0)	7 (1.5)	272 (56.4)	9 (1.9)	482 (100.0)		
	하	9 (11.5)	9 (11.5)	19 (24.4)	2 (2.6)	39 (50.0)	-	78 (100.0)		
보 호 자 직 업 별	농·아 목축업	22 (10.1)	10 (4.6)	63 (28.9)	4 (1.8)	118 (54.1)	1 (0.5)	218 (100.0)	30	30.83
	상업	5 (6.9)	6 (8.3)	16 (22.2)	-	41 (56.9)	4 (5.6)	72 (100.0)		
	공업	2 (11.8)	-	7 (41.2)	-	8 (47.1)	-	17 (100.0)		
	공무 원	1 (2.0)	5 (9.8)	18 (35.3)	1 (2.0)	25 (49.0)	1 (2.0)	51 (100.0)		
	회사 원	2 (4.2)	2 (4.2)	12 (25.0)	-	31 (64.6)	1 (2.1)	48 (100.0)		
	자영 업	4 (6.7)	4 (6.7)	13 (21.7)	1 (1.7)	38 (63.3)	-	60 (100.0)		
기타	13 (11.5)	7 (6.2)	33 (29.2)	3 (2.7)	55 (48.7)	2 (1.8)	113 (100.0)			
계	49 (8.5)	34 (5.9)	162 (28.0)	9 (1.6)	316 (54.6)	9 (1.6)	579 (100.0)			

(* : p<0.05, ** : p<0.01, *** : p<0.005)

22) 장래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는 원인

< 표 23 > 장래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는 원인

(%)

문항 변인	고졸 학력	실력 부족	가정 사정	권력이나 배경빈약	특별한 기술부족	계	d.f	χ^2
성 별	남	28(9.2)	193(63.5)	6(2.0)	17(5.6)	60(19.7)	4	13.88**
	여	10(3.6)	193(70.2)	14(5.1)	17(6.2)	41(14.9)		
학 교 별	농고	9(9.8)	55(59.8)	4(4.3)	3(3.3)	21(22.8)	8	14.23
	공고	10(5.4)	137(73.7)	3(1.6)	14(7.5)	22(11.8)		
	상고	19(6.3)	194(64.5)	13(4.3)	17(5.6)	58(19.3)		
생 활 수 준 별	상	2(10.5)	14(73.7)	-	-	3(15.8)	8	6.66
	중	30(6.2)	325(67.4)	15(3.1)	27(5.6)	85(17.6)		
	하	6(7.7)	47(60.3)	5(6.4)	7(9.0)	13(16.7)		
보 호 자 직 업 별	농·어· 목축업	12(5.5)	140(64.2)	8(3.7)	12(5.5)	46(21.1)	24	19.54
	상업	2(2.8)	52(72.2)	2(2.8)	6(8.3)	10(13.9)		
	공업	-	11(64.7)	1(5.9)	-	5(29.4)		
	공무원	4(7.8)	36(70.6)	1(2.0)	4(7.8)	6(11.8)		
	회사원	3(6.3)	35(72.9)	2(4.2)	1(2.1)	7(14.6)		
	자영업	4(6.7)	42(70.0)	3(5.0)	4(6.7)	7(11.7)		
	기타	13(11.5)	70(61.9)	3(2.7)	7(6.2)	20(17.7)		
계	38(6.6)	386(66.7)	20(3.5)	34(5.9)	101(17.4)	579(100.0)		

(** : p<0.01)

23) 미래의 인간상

< 표 24 > 미래의 인간상

(%)

문항 변인		부유한 사람	권력을누 리는 사람	남에게존경 받는사람	멋뻐이 사는사람	보람있게 사는사람	남을도우며 사는사람	계	d.f	χ^2
성 별	남	53 (17.4)	15 (4.9)	32 (10.5)	83 (27.3)	101 (33.2)	20 (6.6)	304 (100.0)	5	23.14***
	여	30 (10.9)	11 (4.0)	10 (3.6)	84 (30.5)	129 (46.9)	11 (4.0)	275 (100.0)		
학 교 별	농고	13 (14.1)	4 (4.3)	17 (18.5)	20 (21.7)	29 (31.5)	9 (9.8)	92 (100.0)	10	32.94***
	공고	34 (18.3)	9 (4.8)	8 (4.3)	58 (31.2)	67 (36.0)	10 (5.4)	186 (100.0)		
	상고	36 (12.0)	13 (4.3)	17 (5.6)	89 (29.6)	134 (44.5)	12 (4.0)	301 (100.0)		
생 활 수 준 별	상	1 (5.3)	1 (5.3)	3 (15.8)	6 (31.6)	6 (31.6)	2 (10.5)	19 (100.0)	10	14.90
	중	65 (13.5)	20 (4.1)	32 (6.6)	141 (29.3)	202 (41.9)	22 (4.6)	482 (100.0)		
	하	17 (21.8)	5 (6.4)	7 (9.0)	20 (25.6)	22 (28.2)	7 (9.0)	78 (100.0)		
보 호 자 직 업 별	농·어· 목축업	33 (15.1)	8 (3.7)	13 (6.0)	63 (28.9)	90 (41.3)	11 (5.0)	218 (100.0)	30	30.20
	상업	13 (18.1)	5 (6.9)	2 (2.8)	25 (34.7)	25 (34.7)	2 (2.8)	72 (100.0)		
	공업	-	-	2 (11.8)	7 (41.2)	7 (41.2)	1 (5.9)	17 (100.0)		
	공무 원	2 (3.9)	1 (2.0)	6 (11.8)	16 (31.4)	22 (43.1)	4 (7.8)	51 (100.0)		
	회사 원	4 (8.3)	2 (4.2)	3 (6.3)	14 (29.2)	23 (47.9)	2 (4.2)	48 (100.0)		
	자영 업	9 (15.0)	6 (10.0)	5 (8.3)	15 (25.0)	21 (35.0)	4 (6.7)	60 (100.0)		
	기타	22 (19.5)	4 (3.5)	11 (9.7)	27 (23.9)	42 (37.2)	7 (6.2)	113 (100.0)		
계	83 (14.3)	26 (4.5)	42 (7.3)	167 (28.8)	230 (39.7)	31 (5.4)	579 (100.0)			

(** : p<0.005)

24) 가업승계에 대한 견해

졸업후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은 < 표 25 >와 같다.

전체응답자의 65.6% 학생은 “다른 직업을 택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7.1%의 학생은 “이어받고 싶다”고 응답해, 다수의 학생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에서는 $P < 0.01$ 수준에서, 보호자 직업별로는 $P < 0.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여학생(72.0%)과 남학생(59.9%)이 모두 다른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반응을 보여 가업승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다만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학생은 남학생(9.5%)이 여학생(4.4%)보다 높은 편이며, 가업을 이룰수 없이 승계하게 된다는 여학생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다른 직업에 비해 공무원(19.6%), 회사원(14.6%), 공업(11.8%) 순으로 가업승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나, 상업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 받고 싶다”는 학생이 한명도 없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24) 가업승계에 대한 견해

< 표 25 > 가업승계에 대한 견해

(%)

문항 변인	가업승계 희망	다른직업 선택희망	잘모름	어쩔수없이 가업승계	계	d.f	χ^2	
성 별	남	29(9.5)	182(59.9)	91(29.9)	2(0.7)	304(100.0)	3	12.63**
	여	12(4.4)	198(72.0)	65(23.6)	-	275(100.0)		
학 교 별	농고	12(13.0)	54(58.7)	25(27.2)	1(1.1)	92(100.0)	6	8.57
	공고	10(5.4)	126(67.7)	50(26.9)	-	186(100.0)		
	상고	19(6.3)	200(66.4)	81(26.9)	1(0.3)	301(100.0)		
생 활 수 준 별	상	4(21.1)	10(52.6)	5(26.3)	-	19(100.0)	6	12.44
	중	28(5.8)	315(65.4)	137(28.4)	2(0.4)	482(100.0)		
	하	9(11.5)	55(70.5)	14(17.9)	-	78(100.0)		
보 호 자 직 업 별	농·어 목축업	10(4.6)	153(70.2)	55(25.2)	-	218(100.0)	18	44.15***
	상업	-	47(65.3)	25(34.7)	-	72(100.0)		
	공업	2(11.8)	12(70.6)	3(17.6)	-	17(100.0)		
	공무원	10(19.6)	23(45.1)	18(35.3)	-	51(100.0)		
	회사원	7(14.6)	24(50.0)	17(35.4)	-	48(100.0)		
	자영업	5(8.3)	41(68.3)	14(23.3)	-	60(100.0)		
기타	7(6.2)	80(70.8)	24(21.2)	2(1.8)	113(100.0)			
계	41(7.1)	380(65.6)	156(26.9)	2(0.3)	579(100.0)			

(** : p<0.01, *** : p<0.005)

IV. 結論 : 要約과 提言

본 연구는 제주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로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주도내 7개 실업계 고등학교 남·여 2학년학생 579명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가치관을 묻는 24개 문항을 선정된 연구내용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인별로 비교하였다.

각 변인별 차이에 대한 유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자승(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도 수준은 0.5%, 1%, 5%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학동기와 배경을 보면 중학교 재학당시 계획한 장래의 진로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하겠다는 학생(32.8%)보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40.9%)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51.3%)이 남학생(31.6%)보다 더 많았으며, 학교별로는 공고생(59.1%)들이, 생활수준별로는 중류층(43.6%)이 더 많았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중학교 3학년때의 성적은 학급에서 중위권이 46.3%로 가장 많았고, 상위권에는 비교적 여학생이, 하위권에는 남학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동기를 보면 74.8%가 실력이 부족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으며, 진학 결정은 “본인 스스로”가 했다는 학생이 46.1%로 가장 많았다.

현재 재학중인 실업계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 만족해 하는 학생(39.1%)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55.6%)이, 학교별로는 공고(69.9%)생이 학교 선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둘째, 진로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진학문제”(37.3%), “취업문제”(18.7%), “기능사 자격취득”(1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여학생은 46.2%가, 공고생들은 51.1%가 “진학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비해 농고생들은 23.9%가 “취업문제”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자신의 장래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는 자주 생각하는 편(53.7%)이며, 진로를 “바꾸지 않겠다”는 학생은 39.9% 뿐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변경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62.9%)이, 학교별로는 공고생(63.4%)이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은 “실력이 모자라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까 불안하다”가 38.1%, “대학에 가야 하는데 실력이 문제다”가 24.8% 순으로 높은 반응을 보여 역시 학생들에게는 취업과 진학이 가장 큰 고민거리임을 알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배우고 있는 전공학과와 적성과의 관련성은 절반정도(48.2%)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셋째, 직업에 대한 포부를 보면 자신의 진로는 적성과 능력(69.1%)을 고려하여 결정하겠으며, 만약에 진로를 결정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친구(35.1%)를 의논 상대로 삼겠다고 응답했다.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학생은 63.4% 이지만, “학비마련 후 진학하겠다”는 학생(7.4%)과 “야간대학에 다니겠다”는 학생(7.8%)까지 진학 희망자로 본다면 무려 78.6%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적성을 살리고(44.5%)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25.0%) 순으로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기회가 주어 진다면 진학을 하겠다는 학생도 21.1%나 되고 있다.

한편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훌륭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가 34.6%로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학벌이 중요한 사회(19.9%)이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16.3%)라는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어,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진로지도가 강화되어야 하겠다.

넷째,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으로는 남(43.8%)·여(62.5%) 모두가 “전문·기술직”을 선호하고 있으며, 학교별로는 농고생들이 전공과는 무관한 “서비스직”(23.9%)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전공에 부합되고 능력과 소질에 맞는 직업선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래 직업을 선택할 때 부모와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자신이 판단하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학생(56.1%)이 과반수를 넘고 있어 자율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보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실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학생이 54.6%로 가장 많았고, “학력”이나 “권력 또는 배경”이 중요하다고 보는 경우는 10.1% 밖에 안되어, 학생들이 매우 바람직하고 건전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학생들의 직업관을 보면 장래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력이 부족해서”라는 학생(66.7%)과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라는 학생(17.4%)이 대부분이나, 학력을 중시하는 경향은 남학생(9.2%)이 여학생(3.6%)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래에 바라는 자기의 인간상에 대해서는 39.7%의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고 보람있게 살아 가겠다는 바른 생활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65.6%)들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적성과 소질이 우수한 중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통해 실업계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학과 및 진로에 대한 자세한 홍보와 학부모, 교사, 학생이 동참하는 진로탐색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둘째, 특정계열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진로를 수정하여

계열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며, 부전공시간을 운영하여 중도탈락하는 학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함은 물론 확실적인 직업교육을 지양하고 진학희망자를 위한 효율적인 진로지도가 병행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여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시대조류에 맞게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공학과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특성화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이 전공과는 무관한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취업을 보장해 주고, 동일계 4년제 대학진학의 특전을 주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지식과 기능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긍지와 희망을 가지고 직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올바른 직업윤리관을 확립해야 한다.



參 考 文 獻

< 단 행 본 >

- 장무섭·박영숙(1984), 「학생의 진로결정과정 분석」, 교육개발원.
- 김용기(1974), 「현대교육학원론」, 박영사.
- 김충기(1983), 「직업교육과진로교육」, 교육과학사.
- _____ (1987), 「청소년의 직업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박희섭(1986),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고찰」, 청소년지도육성회.
- 방진우(1983), 「진로발달의 원조」, 호남출판사.
- 유안울(1981), 「교육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개발원.
- 이기원(1983), 「국민정신교육」, 감을출판사.
- 이승우·홍기형(1981), 「진로지도」, 교육출판사.
- 이영덕(1982), 「생활지도의 원리와 실제」, 교학도서출판사.
- 이정근(1982), 「진로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교육개발원.
- _____ (1987),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중앙적성연구소.
- 장원종(1985), 「직업과 윤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범모(1983), 「가치관과 교육」, 배영사.
- 정세구(1983), 「가치·태도교육의 이론과 실제」, 배영사.
- 정원식(1980), 「정의의 교육」, 배영사.
- 차경수(1977), 「산업사회의 교육문제」, 백영사.
- 홍기형(1990), 「진로지도의 이론과 실제」, 교육출판사.
- 홍승직(1973),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 황정규(1970), 「교육평가」, 제동문화사.

< 논 문 >

- 고형울 (1990),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특성에 대한 의식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일 (1996),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택 (1993), “고등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종선 (1992), “고등학교학생의 직업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박영희 (1994), “상업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희섭 (1986),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고찰,” 논문집 제 16집, 청소년지도육성회
- 신덕자 (1988), “직업가치관과 취업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운태 (1991),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직업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엄상호 (1995),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현교 (1984), “실업계 고교생의 실업교육에 대한 의식조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광복 (1988), “실업계 여고생의 직업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일규 (1992),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명석 (1988),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직업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
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기 타 >

- 김상형 (1993),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김충기 (1981), “평생교육으로서의 진로지도”, 「새교육」, 11월호
서울대 사대 (1891), 「교육학 용어사전」, 배영사
이정근 (1982), “진로관 확립을 위한 학교 교육”, 「교육개발」, 2호.
제주도교육연구원 (1996), 「진로교육편람」
제주도교육연구원, (1997), 「진로교육」, 제28호
차경수 (1977), “산업사회 교육문제” 「교육현장전서」, 제2권 백영사



<Abstract>

A Study on the View of Occupational Values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do

Koh, Suk Hee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ang-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course guidance. Twenty four items about occupational values have been investigated according to social or economic variables.

In the variables of entrance motivation, 40.9 percent of the students wanted to enter high school and university.

74.8 percent of the students entered the vocational high school because of their poor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46.1 percent of the students decided themselves which high school to enter. Less than half the students are satisfied with their choice of high school.

In the variables of attitude and interest, most students are concerned with entering university or college. If given the chance, they would like to change their course. They think that their department has less relation to their aptitude. 36.6 percent of the students thinks that vocational subjects don't benefit their social lif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1998.

35.1 percent of the students would decide which job to get based on their friends' advice and 27.6% with their parents' advice. 78.6 percent of the students wanted to university or college. The causes are to be an expert(34.6%), to get good school connections(19.9%) and to get a good job(16.3%).

The standards of their job choice are aptitude and interest(57.7%), and their ability(25.1%). Their favorites are professional and technical jobs, and service jobs. Generally These jobs have no relation to their major.

They think that they can get the desirable jobs only with ability and skill. 65.6 percent of students have indifference toward succession of their family occupation.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urse search program should be decided with input from parents, teachers and students.

Second, uniform education should be reduced and effective course guidance be carried out for the students wishing to enter the university or college.

Third, some departments in vocational high school should be abolished, integrated and speci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times.

Fourth, the opportunity to find work related to their major should be increased. Plus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should be able to continue their study in university.

Fifth, suitable vocational ethic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students get proper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 附 錄 >

질 문 지

학생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본 설문지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을 조사하여 올바른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여러분의 학교나 개인 신상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제시된 내용들은 컴퓨터로 통계처리되어 오직 연구의 자료로 만 사용될 것이므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성의있게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7년 12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 전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 석 회 드림

※. 다음 (1~4)은 자료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항목이므로 빠짐없이 답하여 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 () ② 여 ()
2. 학교 : ① 농고 () ② 공고 () ③ 상고 ()
3. 생활정도 : ① 상 () ② 중 () ③ 하 ()
4. 보호자 직업 : ① 농업·어업·목축업 () ② 상업 () ③ 공업 ()
 ④ 공무원 () ⑤ 회사원 () ⑥ 자영 ()
 ⑦ 기타 ()

※. 다음 설문을 읽고 자기에 대해 해당하는 사항을 하나만 골라 ()안에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자신이 중학교때 계획한 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실업계고등학교 졸업후 취업 () ② 인문계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진학 ()
 ③ 야간학교 진학후 취업 () ④ 기 타 ()

2. 중학교 졸업당시의 학급 석차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10 등 이내 () ② 11 - 20 등 () ③ 21 - 30 등 ()
 ④ 31 - 40 등 () ⑤ 41 등 이하 ()

3. 학생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흥미가 있고 적성에 맞아서 ()
 ② 가정형편이 어려워 취업할 목적으로 ()
 ③ 실력이 부족하여 인문고 진학이 어려워서 ()
 ④ 다른 사람의 권유로 무작정 입학 ()
 ⑤ 동일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
 ⑥ 대학까지 진학할 필요가 없어서 ()

4. 현재의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선생님 () ② 부모, 형제, 친척 ()
 ③ 선배, 친구 () ④ 본인 스스로 ()

5. 자기의 적성과 소질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대단히 만족스럽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럽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불만이다 () ⑤ 모르겠다 ()

6. 현재 자신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 ① 건강문제 () ② 취업문제 () ③ 가족문제 () ④ 성적문제 ()
 ⑤ 친구관계 () ⑥ 진학문제 () ⑦ 이성문제 () ⑧ 학비문제 ()
 ⑨ 선·후배문제 () ⑩ 기능사 자격 취득 ()

7. 학생은 평소 장래 진로나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안한다 () ② 안하는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자주 하는 편이다 () ⑤ 매우 자주하는 편이다 ()
8. 지금 학생에게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① 자퇴를하여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겠다 ()
 ② 전공을 바꾸고 싶다 () ③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 싶다 ()
 ④ 휴학하여 다시 나의 진로를 생각해 보고 싶다 ()
 ⑤ 진로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다 ()
9. 장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진로에 대해 더놓고 상의할 만한 사람이 없다 ()
 ② 실력이 모자라 갖고 싶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까 불안하다 ()
 ③ 취직길을 어떻게 뚫어야 할지 걱정이다 ()
 ④ 대학엘 가야 하는데 실력이 문제다 ()
 ⑤ 장래가 웬지 불안하다 ()
10.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전공학과와 자신의 적성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관련성이 많이 있다 () ② 관련성이 조금있다 ()
 ③ 관련성이 없다 () ④ 그저 그렇다 () ⑤ 모르겠다 ()
11.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실업과목 내용이 졸업후, 우리 사회에서 어느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잘 활용할 수 있다 () ② 도움이 될 것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전혀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
 ⑤ 모르겠다 ()
12. 진로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성과 능력 () ② 학력수준 () ③ 가정형편 ()
 ④ 부모의 기대 () ⑤ 본인의 희망 () ⑥ 기타 ()

13. 학생이 진로결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누구와 먼저 의논하고 싶습니까?

- ① 부모 () ② 교사 () ③ 선배 () ④ 친구 ()
- ⑤ 친척 () ⑥ 형제 () ⑦ 혼자결정 ()

14. 고등학교 졸업후 학생은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 ① 취업하겠다 () ② 취직하여 학비를 마련한후 진학하겠다 ()
- ③ 대학에 진학하겠다 () ④ 사업을 하겠다 ()
- ⑤ 취직하고 야간대학 다니 겠다 () ⑥ 아직 아무런 계획도 없다 ()

15.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 14번 문항에서 ① ② 번에 표시한 학생만 해당됨)

- ①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
- ② 진학에 필요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
- ③ 자기의 적성을 살리기 위해서 ()
- ④ 진학은 하고 싶으나 실력이 모자라서 ()
- ⑤ 전공과 다른 분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
- ⑥ 전공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
- ⑦ 진학할 필요가 없어서 ()



16.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 14번 문항에서 ③번에 표시한 학생만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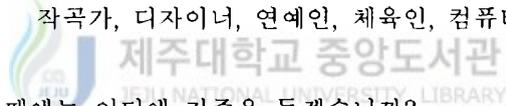
- ① 대우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
- ② 보다 높은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
- ③ 훌륭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
- ④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
- ⑤ 학벌이 중요한 사회이므로 ()
- ⑥ 부모와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
- ⑦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하여 ()

17.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하여 직장생활에 충실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
- ② 성공은 어렵지만 만족할 수 있다고 본다 ()
- ③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성공은 어렵다고 본다 ()
- ④ 운만 좋으면 된다고 본다 ()
- ⑤ 아무리 애써도 안된다고 본다 ()
- ⑥ 모르겠다 ()

18. 모든 여건이 허용한다고 할 때, 학생이 원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숙련직(운전기사, 이·미용사, 기능공, 점원 등) ()
- ② 서비스직(요리사, 웨이터, 보안업무원 등) ()
- ③ 생산직(제조업, 건설업, 토목공사, 통신기능공 등) ()
- ④ 판매직(도매, 소매업, 음식점, 여관업, 학원경영, 등) ()
- ⑤ 농림축산업(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등) ()
- ⑥ 사무직(6급이하공무원, 은행원, 회사원 등) ()
- ⑦ 행정·관리직(5급이상공무원, 병원장, 지점장, 군인, 경찰 등) ()
- ⑧ 전문·기술직(변호사, 교수, 의사, 법관, 기자, 방송인, 종교인, 예술가, 작곡가, 디자이너, 연예인, 체육인, 컴퓨터기술자 등) ()



19.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어디에 기준을 두겠습니까?

- ① 적성과 흥미 ()
- ② 자신의 능력 ()
- ③ 임금수준 ()
- ④ 승진과 출세의 가능성 ()
- ⑤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정도 ()
- ⑥ 경제적 안정성 ()

20. 직업 선택시 부모와 의견이 서로 대립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하겠다 ()
- ② 자신이 판단하여 결정하겠다 ()
- ③ 그때 가봐야 알겠다 ()
- ④ 모르겠다 ()

21. 남보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학력 () ② 경제력(돈) () ③ 특별한 기술 ()
 ④ 권력이나 배경 () ⑤ 실력 () ⑥ 신체적 조건 (외모) ()
22. 만약 장래에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고졸이어서 () ② 실력이 부족해서 () ③ 가정사정 때문에 ()
 ④ 권력이나 배경이 없어서 () ⑤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
23.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다음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 ① 돈을 많이 벌어 부유한 사람 ()
 ② 출세하여 명성이 높거나 권력을 누리는 사람 ()
 ③ 인격과 덕망이 높아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 ()
 ④ 내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갖고 멋있게 사는 사람 ()
 ⑤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고 보람있게 사는 사람 ()
 ⑥ 남을 도우면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 ()
24. 아버지의 현재 직업을 이어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이어 받고 싶다 () ② 다른 직업을 택하고 싶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어쩔수 없이 받게 된다 ()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